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075-10

200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7. 12

통 일 부

< 목 차 >

1. 경제정책

| | |
|------------------|---|
| 가. 경제정책 여건 | 1 |
| 나. 경제정책 방향 | 2 |
| 다. 경제관리 동향 | 3 |
| 라. 평가 | 6 |

2. 재정 · 예산

| | |
|--------------------|----|
| 가. 2006년도 결산 | 8 |
| 나. 2007년도 예산 | 10 |
| 다. 평 가 | 11 |

3. 주요 산업별 동향

| | |
|--------------------------|----|
| 가. 농 · 립 · 축 · 수산업 | 13 |
| 나. 광 · 공업 | 35 |
| 다. 수송 및 도시경영 | 47 |
| 라. 과학기술 | 50 |

4. 대외경제 동향

| | |
|---------------------|----|
| 가. 대외 정책방향 | 60 |
| 나. 대외 무역 | 61 |
| 다. 대외 경제협력 동향 | 63 |
| 라. 평 가 | 71 |

5. 종합평가와 전망

| | |
|--------------------------|----|
| 가. 2007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 73 |
| 나. 2008년 북한경제 전망 | 75 |

부 록

| | |
|-----------------------------------|-----|
| 부록 1. 2007년도 경제분야 관련 행사 개최 현황 ... | 76 |
| 부록 2. 2007년도 주요 경제 건설 실적 | 80 |
| 부록 3. 2007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 83 |
| 부록 4. 2007년도 신년공동사설(원문) | 115 |

1. 경제정책

가. 경제정책 여건

- 2006년에는 농업의 주공전선 재설정, 산업시설 개건·현대화 등 농업·산업 생산토대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선군정치를 근간으로 체제수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 농업생산 감소, 토목 건설 등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1.1%)으로 전환
-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06년을 “강성대국의 여명을 맞이한 역사적 해”로 규정하고
 - 핵 억제력 보유로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강국으로의 전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07.4.11)를 통해 지난해 (2006년) '인민경제부문 총수입 증가, 중요 공업제품 증산 등을 이룩했다'고 언급
 - 총적 과업으로는 “선군혁명 총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 것”을 제시

○ 2007년도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 여건은

- 대내적으로는 △만성적 경제침체에 따른 내부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기본 경제건설 수요 충족 미달 등 어려운 상황
- 대외적으로는 국제 교류협력 강화·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관계 개선 등 대외경제 여건은 호전

나. 경제정책 방향

○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07년을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면서

-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인민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잠재력을 발양 시킬 것"을 촉구

○ 또한, '07년도 북한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 △「경공업 혁명」을 통한 인민소비품의 결정적 증산 △4대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발전 등과 더불어
-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과학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 * 「노동신문」은 사설(1.4)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 지침으로 ①우리식 경제건설 사상과 정책 ②자력갱생 원칙 ③과학기술의 현대화 등을 제시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07.4.11)에서 광범기 내각 부총리는 '07년 주요 경제과업에 대한 세부정책 목표를 제시
 - △농업·경공업에 기초한 인민생활 향상 △4대 선행부문에 기초한 생산 잠재력 발양 △인민경제 개진·현대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는 한편
 - 과학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 적극 추진을 강조
- *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 ('03~'07)」 완수 및 제3단계 5개년 계획 수립, 핵심 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적극 개발 보급을 촉구
- 한편,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수출품 생산 증대 및 무역 확대를 위한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합영·합작 실현 의지를 표명

다. 경제관리 동향

- 북한은 연초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고 예년처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선동모임을 잇달아 전개

- 각 지역·기관·단체별로 신년공동사설 관철 「결의모임」을 연초에 집중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
- 김정일은 자강도 「희천공작기계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평북·함북·함남 등 지역별로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집중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독려
 - 김정일은 연중 에너지난 타개, 주민생활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총 18회의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실시 (12.1 현재)
 - * 조선신보(12.5)는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은 18회로 전년 동기비 1/3로 줄어들었으며,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1회 줄어들었으나 지도대상은 오히려 9개 증가하였다고 보도
 -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통해 선군시대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모델로서 「태천의 기상」을 새로운 경제선동 슬로건으로 제시
 - 또한, 현지도 대상 공장·기업소별로 보면 전력·금속·기계 등 선행부문에 대한 시찰이 주류를 차지
 - * 김정일은 연도 중 희천공작기계·태천4호발전소·청진광산금속대학·어랑천1호발전소·함북도주민발전소·흥주청년2호발전소·나남탄광기계·김책제철·성진제강·북중기계·낙원기계 등 기간산업부문을 집중 현지도
- 내각에서는 분기별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경제과업의 분기별 실행대책을 강구

- 특히, 4대 선행부문 발전에 역량 집중을 강조하면서 이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공급하기로 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 * 2월, 4월, 7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회의 개최
- o 또한, 내각은 경제관리개선 차원에서 공장·기업소의 열 관리 및 설비 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행규정을 마련
 - * 설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낭비현상을 줄이기 위해 「열 및 내압 설비 감독법 시행규정」 채택 (6.6. 민주조선)
- o 한편,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각종 근로단체 군중대회 등을 적극 개최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에 주민 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독려
 - 각 지역·기관·단체별로 「신년공동사설 관철 결의모임」을 연초에 집중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
 - 또한 연중 사회주의 노력경쟁 분위기 제고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509개 각급 경제 모범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
 -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75년 당중앙위 제5기 제11차 전원 회의(1975.11.19)에서 결정, 3대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 추진 목적으로 채택된 노력경쟁운동
 - 정상회담 직후부터 농근맹·여맹·당세포비서·지식인 군중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 * 「농근맹 제54차 전원회의」(10.24), 「여맹 제50차 전원회의」(10.25), 「黨세포비서대회」(10.26~27), 「전국지식인대회」(11.30~12.1)

라. 평 가

- 올해 북한은 핵문제, 경제난 등 대내외적 경제정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 '0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비약적 발판이 마련된 해」로 자평하는 등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07년도에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
- 대내 산업정책 면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 향상 및 경제개건 현대화에 중점
 -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의 우선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특히 「농업 및 경공업 분야 집중 발전」을 선차적으로 강조하였고
 -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경제부문과 인민생활 향상 방침」을 국방공업보다 우선하여 제시
- * 제11기 5차 최고인민회의 「사업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었다고」언급함으로써 '07년도에는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

- 또한, 경제관리 면에서도 최고인민회의(4.11)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을 개선·완성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 「북한식 경제개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
- 경제제재 등 대외경제의 획기적 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대외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 표명
-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경협 확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2. 재정 · 예산

북한은 4. 11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를 개최하고 광범기 내각 부총리의 「'06년 사업정형과 '07년 과업」 보고에 이어서 노두철 내각부총리가 당해년도 예·결산을 발표하였음.

* 동 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소환으로 부총리들이 보고 및 발표

가. 2006년도 결산

- 2006년도 예산의 총수입 규모는 4,092억 북한원(29.0억 달러)으로 계획(목표)대비 2.5% 미달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대비 4.4% 증가하였고 지방예산 수입은 계획보다 4.9% 초과 수행
 - * '06년도 북한원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은 1달러:141원 적용
- 이와 관련 항목별 예산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전년도('05)와 달리 불언급
 - * 전년도('05)에는 항목별 예산수입증가율이 국가기업이득금 14.2%, 협동단체이득금 24.3%, 사회보험료 수입 5.7%, 기타 수입 0.3% 등으로 발표
- 2006년도 예산의 총지출규모는 4,193억 북한원(29.7억 달러)으로 계획대비 0.1% 미달 집행된 것으로 결산

- 이러한 예산지출은 계획에는 미달한 것이나 규모면에서는 전년(4,057억 북한원)보다 3.4% 증가
- o 항목별 지출 내역은 인민경제비가 지출 총액의 40.8%(1,711억 북한원), 인민적시책비 40.7%(1,706억 북한원), 군사비 16.0%(671억 북한원), 관리비 2.5%(105억 북한원) 등으로 각각 구성

<2006년 비목별 예산집행 내역 >

| 구분 | 인민경제비 | 인민적시책비 | 국방비 | 관리비 | 합계 |
|--------|---------|---------|--------|-------|---------|
| 금액(억원) | 1,711 | 1,706 | 671 | 105 | 4,193 |
| ('05년) | (1,676) | (1,651) | (645) | (85) | (4,057) |
| 비중(%) | 40.8 | 40.7 | 16.0 | 2.5 | 100% |
| ('05년) | (41.3) | (40.7) | (15.9) | (2.1) | (100.0) |

* 주: '05년 북한 발표액에 기초하여 매년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추제

- o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수입 4,092억 북한원, 지출 4,193억 북한원으로 101억 북한원(0.7억 달러) 적자
- '06년도 재정적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재정수입 증가(전년비 4.4%)에도 불구하고
- 경제건설 및 사회문화비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이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발생

* 이로써 북한은 '04년 이래 3년 연속 적자재정을 운용(재정적자 : '04년 112.6억원 → '05년 139.9억원 → '06년 100.7억원)

나. 2007년도 예산

- 북한은 2007년도 예산 수입을 전년대비 5.9% 증액시킨 4,332억 북한원(30.9억 달러)으로 책정
 - 예산 자금수요 보장을 위해 수입원천 발굴 최대화, 비생산적 지출 최소화 원칙에서 예산 편성
- 북한이 예견한 예산수입을 원천별로 보면,
 -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세입 원천이 되는 국가기업이득금(6.4%)과 협동단체이득금(4.5%)은 비교적 소폭 증액시킨데 비해
 - 감가상각금수입(9.6%), 부동산사용료 수입(15.4%), 사회보험료(15.1%) 등 여타 신설 세입원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예산증가율 5.9% 보다 훨씬 늘려 책정
- 2007년도 예산 지출은 전년대비 3.3% 늘려서 편성
 - 세부 지출 항목별로는 군사비에 대해서만 전체 예산지출액의 15.8%(684억 북한원)로 발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만 전년비 증가율로 발표
 - * 군사비 전년비 증가율은 1.9%로 전체 예산 증가율(3.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편성

- 농업부문(8.5%), 경공업부문(16.8%), 4대 선형부문(11.9%) 등 금년도 중점사업부문 지출을 대폭 확대
- 과학기술 중시노선에 따라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전년대비 60.3% 증액 편성하고 이를 위해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발전사업비로 지출하는 새로운 조치 시행
- 교육사업비(7.0%), 보건사업비(9.8%),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9.4%)를 증액 편성

다. 평 가

- o 북한은 '04년, '05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재정을 시현하면서 '06년 결산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모두 계획에 미달
 - 이는 지난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 현실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의 계획을 수립했음을 의미
- o 이에 따라 북한은 '07년 예산 편성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난해보다 다소간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
 - '06년도에는 국가예산수입 증가율을 전년비 7.1%로 비교적 높게 책정하였으나 '07년도에는 전년비 5.9%로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
 - 국가예산 지출의 경우도 그 증가율을 '06년에는 전년비 3.5%로 책정하였으나 '07년에는 3.3%로 다소 하향 조정

o 2007년도 예산 편성은

- 북한은 2007년도에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등 주요 세입원보다 여타 세입원의 발굴·확보를 통해 재정 수입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 군사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은 현상 유지의 선에서 소폭 증액하는 대신
- 과학기술(60.3%), 경공업 부문(16.8%)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경제 건설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 확충과 주민생활 향상에 주안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평가

o 한편 2007년도 북한의 재정 운용은 경제사회 건설 수요의 급증으로 예산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재정이 불가피

<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정 규모 >

(단위: 만원)

| 구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 예산 | 2,020,603 | 2,037,828 | 2,040,532 | 2,157,080 | 2,217,379 | 32,986,900 | 35,126,600 | 38,859,300 | 41,970,142 | 43,323,509 |
| 결 | | | | | | | | | | |
| 세입 | 1,979,080 | 1,980,103 | 2,090,343 | 2,163,994 | 2,228,466 | 33,232,356 | 33,754,600 | 39,170,174 | 40,920,884 | - |
| 산 | | | | | | | | | | |
| 세출 | 2,001,521 | 2,001,821 | 2,095,503 | 2,167,865 | 2,212,944 | 32,344,900 | 34,880,700 | 40,569,109 | 41,928,172 | - |

* '02년 7.1조치(물가·임금·환율 인상)로 '03년부터 북한 재정규모에 큰 차이 발생

3. 주요 산업별 동향

가. 농·림·축·수산업

(1) 농업

(가) 세부정책목표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종전과 같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하여 먹는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진을 이룩할 것을 강조
 - 특히 농업부문의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 제고와 더불어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는 가운데
 - 과학적 영농방법 도입, 영농자재 최우선적 보장, 미루벌의 알곡생산 기지화 등을 중점적인 정책목표로 제시
-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다수확 품종의 종자들을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적극 도입
 - 퇴비와 흙보산 비료 생산·시비, 선진영농방법 도입 등 정보당 알곡 수확고 제고 노력 경주
 - 최근의 성과에 기초하여 감자농사, 두벌농사, 콩농사 등을 심화 발전

- 사리원 미곡협농 등 모범 협동 농장을 일반화하면서 전 농장들이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 적극 전개
- 대계도간석지 등 간석지공사 지속 추진으로 '새 땅 찾기'에 주력하고 미루벌을 알곡생산기지로 전변
- o 이를 위해 북한은 '07년도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 예산을 전년비 8.5% 늘려 전체 예산 증가율 3.3%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편성
- 이는 북한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

(나) 생산 동향

- o 북한의 모내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 3월 중순 냉상모판에 벌써 파종으로 모를 기르고, 4월 중순갈이·씨레치기 등 모내기 준비를 한 후
 - 5.10을 전후로 하여 서해안 평야지대에서 시작, 6월 초순까지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마무리
 - * '07년 첫모내기는 5.10 김일성·김정일이 명예농장원으로 있는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실시

○ 연도 중 감자 증산을 위해

- 양강도 대흥단 등 북부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감자재배 면적 확대, 우량감자종자 개발·보급 등에 주력하는 한편

* 서류(감자 등) 재배 면적 : '99년 12만ha → '07년 20만ha

-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등 서해안평야지대에서도 이모작 재배 가능 다수확품종 개발로 감자재배 면적을 확대

* 서해안평야지대에서 재배 가능한 다수확품종(울감자6호, 울감자7호)과 이모작 재배 품종(형산감자1호, 형산감자2호)을 새로이 육성

- 특히 4월 초 부터 황해북도에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에 따라 앞그루 감자심기에 주력

○ 또한 7.23~24에는 「국제감자과학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 감자종자연구, 저장 및 가공·이용과 관련한 선진기술 도입을 도모

- 참석국가는 중국, 부탄,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표 등이며, 북한에서는 김혁진 농업성 부상, 농업과학원 부원장 고금학 등이 참석

- 회의에서는 북한의 감자농사 실태와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 감자연구 및 발전전략, 감자 재배법 협력방안 등을 논의

- 콩 농사는 북한 전역에 걸쳐 재배면적을 지난해(13.5만 ha)의 1.3배 이상 증가 목표를 세우고 콩 생산을 적극 독려
 - 콩은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하고 두부, 간장, 된장, 콩 우유 등 기초식품의 원료로서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식량작물
 - 이 점을 감안 북한은 '04년 이래로 북한은 콩 농사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
 - * 먹는 문제 해결에 있어 논벼와 강냉이 뿐 만아니라 밀, 보리, 콩과 같은 알곡작물을 위주로 여러 작물을 배합하여 배치해야 함(민주조선, 5.17)
 - * 두류생산량 : '04년 13만톤→'05년 17만톤→'06년 16만톤→'07년 15만톤
- 장마철을 맞아서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농작물 비배관리, 저수지 수문보수, 강·하천 제방보수 등 큰물막이 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하였으나
 - * 중앙기상수문국의 김철 처장은 6.28 조선중앙텔레비전 인터뷰(6.28)를 통해 저수지 제방, 논둑, 수문 등 관개시설 정비와 경작지 유실 대책 마련을 촉구
- 중앙통계국은 8.7~18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8.25 공식 발표(8.25, 중통)
 - 8.7~18일에 걸쳐 평양 580mm를 비롯한 북한 중남부지역에 최고 7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 평양시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범람으로 보통강호텔, 능라도 등 저지대가 침수

- 황북 서홍(769mm), 평남 북창(796mm), 강원 회양(745mm) 등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 북한 중앙통계국 및 OCHA 피해발표 내용 비교 >

| 구 분 | 중앙통계국 | OCHA |
|-------|-----------------------------------------------|-----------------------------------------|
| 사망·실종 | 600여명이 사망·실종 | 454사망, 156명실종, 4,351명 부상 |
| 이재민 | 90만여명 피해 | 43.6만 명피해 |
| 주택손실 | 24만여 가구 파괴 또는 침수 | 4만436채 완파, 6만7,056채 부분 파괴, 13만3,732채 침수 |
| 농경지 | 20여만 정보 훼손 | 22만3,381ha(논20%, 옥수수밭15% 피해) |
| 철도·도로 | 철길: 100개소 7만8천여㎡ 파괴 도로: 2,000여개소 600여 km유실 | |
| 기 타 | 8천여채의 공공건물 훼손 300여개의 갱과 채탄장, 수십만톤 석탄 유실 등 | |

< 주요지역 강수량 현황 (8.1~8.19) >

(단위 : mm)

| 평 양 | 평 남 | | | | | | 함 남 | | | | | 황 북 | | | 강 원 | | | | |
|--------|-----|-----|-----|-----|-----|-----|-----|-----|-----|-----|-----|-----|-----|-----|-----|-----|-----|-----|-----|
| | 북창 | 양덕 | 숙천 | 덕천 | 평성 | 맹산 | 순천 | 정평 | 홍원 | 함흥 | 고원 | 신흥 | 신평 | 서흥 | 신계 | 수안 | 평강 | 천내 | 회양 |
| 580 | 796 | 616 | 672 | 622 | 572 | 529 | 452 | 399 | 389 | 336 | 391 | 304 | 592 | 769 | 730 | 406 | 663 | 422 | 745 |

* 북한발표 및 세계기상통신망(GTS) 자료 종합

o 이어서 9.18~9.21 기간 중 「태풍 12호(위파)」에 의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9.24, 중통)

- 평양 331mm를 비롯,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등 북한 서해안 지방에서 250mm~470mm의 많은 비가 내림.

* 강수량 : 황남 은천군 469mm, 재령군 446mm, 태탄군 410mm, 장연군 397mm, 황북 사리원시 339mm 등

o 북한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농경지 10.9만 정보를 비롯, 주택 1.4만세대, 공공건물 8,000여 동, 생산 건물 300여 동 등의 재산피해 상황을 발표

- 특히 황남 삼천군·신천군, 황북 사리원시 등 황해남·북도 지역에서 큰 피해

< 북한 발표 태풍피해 상황 종합 (9.24, 중통) >

| 주택 | 공공건물 | 생산건물 | 농경지 | 철도 | 다리·도로 |
|---------|----------|--------|-----------|-------|--------|
| 1.4만 세대 | 8,000여 동 | 300여 동 | 10.9만여 정보 | 수십 개소 | 90여 개소 |

- 8월 집중호우 및 9월 태풍으로 황해도 등 곡창지대 농경지 30여만 정보 이상이 침수 또는 매몰되는 등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중호우 피해는 농작물 생육 또는 작황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
 - 특히 出穗期(벼꽃이 피는 시기) 또는 乳熟期(벼 수정이 막 지난 시기)를 맞은 벼 감수 피해가 컸던 것으로 평가
 - 더욱이 호우기간 중의 일조량 부족, 고온다습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병충해 피해도 증가
- * 북한은 8.1 개막하여 진행되던 <아리랑 공연>을 수해로 인해 일시 중단한다고 보도(8.27, 중통)
- 금년도 곡물 생산량은 쌀·옥수수 등의 대량 감산으로 인해 전년도(448만 톤)보다 11% 정도 감소한 401만톤으로 추정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99년 이후 남한의 비료지원과 자체 농업증산 노력 등에 힘입어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 '07년은 7~8월의 집중호우, 9월 태풍 12호(위파) 상륙 등
 잇따른 기상상황 악화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

* FAO는 8월 집중호우시 곡물 수확량 20~30만톤 감소 추정한 바 있으며, 그
 이후 9월 태풍으로 인해 피해 증가

< 최근 북한 6~8월중 집중호우 피해 현황 >

| 연도 | 시기 | 피해지역 | 주요 피해현황 |
|------|-----------|-----------------------------|-----------------------------------------------------------------------------------------------------------------------------------------------------------------------------------------------------------------------------------------------------------------------------------------------------------------------|
| 1995 | 7.31~8.18 | 신의주, 강원, 황해 등 8개 지역 145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68명, 이재민 520만 명 ○ 주택파괴 98,000 세대 ○ 농경지 36만 정보 침수·유실 ○ 저수지 붕괴 102개소, 제방붕괴 13,065km ○ 피해추정액 120억 달러 |
| 1996 | 7.24~28 | 신의주, 강원, 황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116명 ○ 이재민 327만 명 ○ 농경지 26만 정보 침수·유실 |
| 1999 | 7.31~8.3 | 개성, 황해, 평남, 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4만여정보 침수, 2,300여정보 유실·매물 ○ 도로 및 철로 파손 ○ 수백여세대의 주택 손실 |
| 2002 | 8.3~5 | 개성, 황해, 평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도로, 다리 등 파손 ○ 농경지 유실 ○ 수십 명의 사상자·행불자 발생 |
| 2004 | 7.1~25 | 황해, 평남, 강원, 양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유실 10만여 정보 ○ 철로 및 도로 파손 ○ 전기·통신시설 파손 |
| 2005 | 6.30~8.4 | 평양, 평남, 평북, 함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500여 명 ○ 주택 14,000세대 침수 |
| 2006 | 7.10~16 | 황해, 평안, 강원, 함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150 명 ○ 농경지 2만7천정보 ○ 공공건물 500여 동, 교량파괴 80개소 ○ 도로파괴 400km, 철교 10여개소 등 |
| 2007 | 8.7~18 | 평양, 황해, 평안, 강원, 함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600여 명, 부상 수천 명 ○ 주택 24만세대 침수, 이재민 90만여 명 ○ 농경지 20여만 정보 침수·유실 ○ 산업시설 1천여 동, 공공시설 8천여 동 ○ 철도 1백여 개소, 도로 2천여 개소 ○ 탄광 90여개, 갭 300개, 막장 170개 ○ 석탄 유실 수십만 톤, 변전소 수십 개, 전주 8 전주 800기 ○ 수도망 100개소 등 |

* 북한 발표 종합 정리

(다) 농업기반시설 건설

- 북한은 기존 양수관개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90년대 말부터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에 착수

< 미루벌 물길공사 지속 추진 >

- 미루벌 물길공사는 「개천-태성호('99.11~'02.10)」와 「백마-철산('03.5~'05.10)」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로 2006. 3. 31 착공
 - * 김정일은 미루벌 현지지도('05.9.)를 통해 “하루빨리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진행할 것”을 과업으로 지시
 - * 「미루벌 물길」은 이상(강원도 판교군)에서 미루벌(황해도 곡산군, 신계군, 수안군)에 이르는 220km의 물길
- 지난해에 이어 북한은 미루벌 물길공사를 연중 최대 과업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
 - 신년 공동사설 및 「'06년 사업정형과 '07년 과업」를 통해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중점 과업으로 설정
- 연도 중 미루벌 건설동향을 보면
 - 1.3 미루벌 물길 천개저수지와 이상저수지 공사장에서 3만산과 1만산 밭파를 시작으로

- 2.23 천개저수지 무늬이언제 공사를 위한 6만산, 4.8 이상 저수지 무늬이언제 형성을 위한 10만산 밭파를 진행하였으며

* 무늬이언제 : 저수지에 있는 물을 언제(뚝) 위로 넘기기 위한 구조물

- 10.1 미루벌의 기초구조물 공사 및 물길굴 콘크리트 치기 등 진행
- 완공시 관개면적 2만6천 정보, 105대의 양수기 중 60대 철거로 연간 2,700만 kWh의 전기 절약, 중소형발전소 건설로 수천 kW의 발전능력 조성 등을 기대

<개천-태성호물길 '잠진-대보' 지선 물길 공사 착공>

- o 개천-태성호물길을 수원으로 하는 '잠진-대보' 지선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착공(5.15 중방)
 - 동 공사 완공 시 평남도 강서군과 천리마군, 대동군안의 농장들이 양수식 관수체계로부터 개천-태성호 물길을 수원으로 하는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전환되며
 - 이 지역의 논과 밭에 대동강물을 자연흐름식으로 활용, 알곡 생산 증대는 물론 주민들의 식수 문제 해결도 가능
 - 또한 대동1호 양수장의 대형 양수기와 수십 대의 전동기·양수기·전기선을 쓰지 않아 수만 kW의 전력 절약 및 막대한 노력 절감효과

- * 「개천-태성호 물길」은 '99년 11월 착공하여 '02년 10월에 준공한 북한의 간선물길(총연장 334km: 간선 154km, 지선 180km)로서 평안남도·평양남도 등 15개 시·군 10만여 정보에 농업용수를 공급

< 개성시 , 함흥시 등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추진>

- o 특히 개성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수십 개의 대상에 자연흐름식 물길을 위한 보막이 공사를 진행
 - 완공시 수천 정보의 논에 농업용수 보장, 10여개의 양수장이 없어지면서 많은 양수설비와 전기 절약

(라) 평가

- o '07년도 북한의 농업정책방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 식량문제, 먹는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관건적 요소로 인식하고 곡물 증산에 역량을 집중
- o 특히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미루벌 수로공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연흐름식 소규모 수로공사 추진에 집중
 - 이는 어려운 전력사정과 관련, 기존의 전력에 의한 양수체계에서 벗어나 전력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는 시도

- 그러나 농업 생산에 있어서는 8월의 집중호우와 9월 「태풍 12호(위파)」로 인한 피해로 전년비 11% 감소된 401만톤 곡물 생산
- 우리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내년도 식량사정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

(2) 임업

(가) 세부정책목표

- 임업부문에서는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전역을 수림화·원림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림조성사업을 균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3.2, 중방)
- 주요 수종은 잣나무, 은행나무, 수삼나무 등 속성수이면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장려
 - * 이를 위해 북한은 '01.10.4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기간」('01~'10)을 수립하고 매년 15만ha의 식수사업을 추진
- 또한 통나무 생산 증대, 통나무 수송능력 강화, 목재가공 공장 기술 개선을 통한 목재의 종합적 이용률 제고 등에도 주력

(나) 관련 동향

- 「식수절」(3.2)을 계기로 시작되는 「봄철 식수월간」(3~4월)을 맞아 나무심기 쫄기모임, 기념식수 행사 등을 통해 나무심기를 독려
 - * 북한의 식수절은
 - 김일성이 문수봉에서 식수한 날('46.4.6)을 기념하여 '71년 제정되었으나 '99년부터 4.6→3.2로 변경
 - 또한 북한은 연례적으로 「가을철 식수월간(8~9월)」에도 식수사업을 독려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수해 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림조성사업 전개
 - * 강원도에서는 1,800여만 그루의 아카시아 나무 식수
- 통나무 생산에 있어서는 1~2월 및 11~12월을 통해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주력
 - 임업성은 통나무 생산용 기계톱 등 자재공급 및 통나무 생산소대 200여개 증설
 - * 북한은 1.30 현재, 공업생산계획 110.3%, 산지사이나르기계획 108%, 동발나무침목용통나무 등 지표별 생산계획을 각각 초과 달성하였다고 보도(2.6, 노동)
- 한편 북한은 9.7 김일성의 저서 「산림조성산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발표 60돌과 「김정일의 장산 식목」 50돌을 즈음하여

- 「산림, 식물, 토지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토론회」를 인민 문화 궁전에서 개최
- o 동 토론회에서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 안병소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산림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계자 및 과학·기술자들은 20여건의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험을 발표
-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더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기술적 문제」, 「수림화 촉진을 위한 기술공법 연구」 등 토론
- 식물들의 생육특성과 번식, 두벌농사에서 지력 제고를 위한 토지관리방법, 인공풀관설계에서 토지보호대책의 수립 등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
- o 대외적으로는 5.22 평양에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를 체결
- 동 회의에서 러시아 극동지역(특히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에서의 북한 벌목노동력 송출문제, 목재생산 및 분배문제 등 양자간 협력 확대방안 논의

(다) 평가

- 임업부문의 생산은 연도 중 북한 당국(임업성)의 통나무 및 갱목 생산기재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 자강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 각지의 임산사업소에서 전년보다 다소 생산이 증대
- 그러나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식림사업은 8~9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식수들이 유실됨으로써 그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

(3) 축산업

(가) 세부정책목표

-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업”을 주민생활 향상책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
 - 기후풍토에 맞고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 빨리 자라는 우량 품종을 기르기 위해 당의 종자혁명 방침을 관철
 -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사양관리 과학화 실현을 위해 선진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

- * 김정일은 '07.9월 「제757군부대의 축산기지」 현지지도 시에도 염소, 토끼 등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
- 충분한 방역시설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사료보장 대책을 마련
- o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4.11)에서 채택된 「'06년 사업 정형과 '07년 과업」을 통해
 - 기존의 현대화된 닭·오리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와 더불어 지방에서는 염소, 토끼 등 풀 먹는 집짐승 대대적으로 기르고
 - 현대적인 돼지공장 등 새로운 축산기지 건설 추진을 '07년 세부정책목표로 설정

(나) 관련동향

- o 지난해 11월 김정일이 현지 지도한 바 있는 원산목장에서는 연도 중 집짐승 먹이 보장을 위해 수십 정보의 풀판 조성에 주력
- o 또한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에서는 알 깨우기를 위한 온습도 보장, 부화율 제고, 과학적 위생 사양관리 등으로
 - 탄부들에게 보내줄 오리고기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6.26, 중방)

(다) 축산시설 건설 동향

<황남도 신원군 계남목장 등 개건·확장공사 추진>

- 계남목장('00.10.4 준공)은
 - 5천여ha 면적에 먹이가공기지, 양어못, 치즈생산기지, 남새온실, 살림집 등을 갖추고 소, 돼지, 염소, 토끼,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는 종합축산기지로서
 - 그동안 김정일이 '03.6월, 12월 계남목장을 현지지도 하는 등 개건·현대화 사업에 주력
 - * 동 목장은 '03년 젓가공공장, 염소우리(4동), 돼지우리(7동)을 추가 건설하고 목장 현대화를 위한 설비를 보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건·현대화 사업 추진
- 계남목장 개건확장공사는 노력과 자재 보장을 위한 조직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의 수준
 - 해주시와 강령, 태탄군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노력을, 자재 보장은 시·군적인 사업으로 전환 해결하고
 - 시공은 벽성, 보천, 삼천군 건설자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
- 이밖에 구성 닭공장은 8개호동 시설 확장을 계획 추진하고

- 광포오리공장은 새끼오리 우리, 야외오리 우리, 위생통과실 등 보조건물 건설을 추진

< 강계시 등 현대식 돼지공장 완공단계에서 건설 추진 >

- o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여러 동의 생산건물과 보조건물들로 구성된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신축(7.1 평방)
 - 동 돼지공장은 연 건축면적 19,200여㎡ 규모로 종축사, 육성사, 비육사, 고기가공공장, 먹이가공공장 등을 건설
 - 강원도 원산시와 평안북도 태천군 등에서도 돼지공장 건설을 추진(7.1 연합)

< 강계종합목장 건설 추진 >

- o 강계시에 건설되는 강계종합목장은 구봉령 지구와 해남 지구로 나누어 건설이 추진
 - 1,000여 정보 크기의 구봉령 지구에 10개의 분장이 만들어지며, 매 분장에 우리와 먹이창고, 먹이가공기지, 종업원들을 위한 주택 등을 건설
 - 구봉령 기슭에 자리 잡은 종합목장 본장에서는 수십 동의 살림집과 사무실 그리고 단먹이 배양장, 젓가공장을 비롯한 생산건물들을 완공 중

- 해남 지구에는 15개의 분장이 만들어지며, 구룡령 지구와 비슷한 시설들이 건설
- o 강계종합목장의 건설은 초식 가축 중심의 축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사리원 돼지공장 건설 및 닭공장 개건공사 완료>

- o 10.30 황북 사리원시 돼지공장 건설 및 닭공장 개건 공사가 완료되어 현지에서 조업식 진행
- 종축사, 비육사, 먹이가공실 등 기본생산 건물들과 보조 건물들을 완공
- * 사리원 돼지공장은 부지면적 2.5정보에 7개동의 기본생산 건물과 9개동의 보조생산 건물을 갖추게 되며 연건축면적은 1만610평방미터임.(8.11,평방)

<함주 돼지공장 건설 완료>

- o 11.27 함경남도 함주 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현지에서 조업식 진행
- 기본 생산건물인 여러 동의 돼지우리와 부속 건물로 위생 통과실, 양수장,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사료 공장 등 과학적인 돼지사양 관리체계가 구비

< '07년도 축산시설 개건 현대화 및 건설 동향 >

| 주요 내용 | 출 처 |
|---------------------------------|--------------|
| o 광포오리공장 능력확장공사 추진 | 중방(07.02.03) |
| o 원산시 돼지공장 착공식 진행 | 평방(07.03.10) |
| o 함경남도 장진군, 양목장 새로 건설 추진 | 중방(07.03.31) |
| o 강서돼지공장 개건 추진 | 중방(07.05.24) |
| o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젓가공품 증산 위한 시설 현대화 | 평방(07.05.24) |
| o 사리원돼지공장 건설 마감단계 | 평방(07.05.24) |
| o 광포오리공장, 다호직장 능력확장공사 진행 | 중방(07.06.04) |
| o 계남목장, 개건·확장공사 추진 | 평방(07.06.14) |
| o 강계시, 강계종합목장 건설 추진 | 중방(07.09.17) |
| o 사리원 돼지공장 건설 및 닭공장 개건 완료 | 중방(07.10.31) |
| o 함주 돼지공장 건설 완공 | 중방(07.11.27) |

(라) 평가

o '07년도 축산부문에서는

- 새로운 축산기지를 건설 및 기존의 축산시설에 대한 능력 확장 공사를 통해 생산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며
- 예년과 마찬가지로 돼지, 염소, 닭·오리 및 곡물 사료 없이 기르기 용이한 토끼 사육을 전군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는 가운데

- 특히 각지에서 돼지공장 건설 및 개건·현대화 사업이 증가

(4) 수산업

(가) 세부정책목표

- 전반적으로는 수산업부문에 대한 세부정책목표나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 ‘품 들여 마련하여 놓은 양어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 노동신문 사설, 각지 군중대회 등을 통해 양어사업에서 성과를 낼 것을 독려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4.11)에서 채택된 「’06년 사업정형과 ’07년 과업」을 통해
 - 수산부문에서는 변화된 어황조건에 맞는 어로방법과 어구를 갱신하고 바다나물 양식, 재배업을 발전시키며
 - 양어부문에서는 양어의 과학화 수준 제고, 기존 양어장의 운영 정상화 등 도모

(나) 관련 동향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요 행사 보고서나 신문·방송 보도에서 수산업 생산 관련 동향에 대한 보도는 거의 전무
 - 이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 공급사정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 어선 출어일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농업부문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으로 판단
- 다만, 북한은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 중 양어지도국 지도 아래 기존 메기공장 및 양어장들에 대한 관리를 독려
 - 대동강양어사업소 등 평양시 양어관리국 아래 양어사업소에서는 양어장 보수 정리에 주력
 - 염주군에서는 염주청년양어사업소에 대한 못 보수 정리 사업을 진행, 15일 동안에 수십 정보의 못을 정리
 - 범안, 신흥, 청진양어사업소 등에서는 물고기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

(다) 평가

- 수산업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자 부족, 유류 부족 등으로 출어일수가 크게 정체된 가운데
 - 「잡는 어업」 보다는 양어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르는 어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 기존 양어장 관리 불량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

나. 광·공업

(1) 세부정책목표

- '07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광·공업부문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보면
 - 선행부문이 앞서 나가야 연대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을 경제 강국 건설의 전초선으로 할 것을 특히 강조
 - 이 밖에 자원 절약과 함께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할 것과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의 생산 활성화를 제시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4.11)에서 채택된 「'06년 사업 정형과 '07년 과업」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광·공업의 정책 목표를 관련 부문별로 제시
- 우선 경공업 및 4대 선행부문의 세부 정책목표를 보면
 - 경공업부문은 중요 경공업공장 현대화, 공장·기업소 생필품 생산기지의 생산 정상화, 인민소비품 종류 확대 및 제품 질 제고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수력발전소의 터빈 개조 및 수력구조물 보수, 화력발전소의 설비보수 및 기술 개진 등으로 발전 능력 확대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석탄생산 확대 위해 침수갱 복구 및 새 갱 개발 등 채탄장 확대, 필수자재 및 장비·탄부 노동 보호물자 보장으로 석탄생산 정상화, 생산된 석탄은 화력, 금속, 화학, 경공업 등의 중요부문에 우선 공급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무산광산기업소, 은울광산 등 철광산 들의 채굴·운반·선광설비 갱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 활성화, 모든 제철·제강소 생산 증대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표준화사업 추진, 기관차·화차 생산 수리 강화, 수송조직 개선을 통한 수송의 긴장성 해결
- 또한 광업 및 주요 기간산업의 세부정책목표를 보면

- 지질탐사부문에서는 선진탐사기술 도입으로 석탄,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유용자원 더 많이 개발
 -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은파광산, 혜산 청년광산 등 광산들의 생산 정상화, 단천·문평·운전 제련소 기술개선, 미광·연재 등 공업 폐기물 재자원화
 -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희천·구성 공작 공장 등 주요 공장 현대화·정보화, 동부 및 북부지구에 현대적 주물기지 조성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공정 건설 추진,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중요 화학공장 생산 활성화
 -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의 판유리 생산 정상화, 순천 세멘트연합기업소 등 세멘트공장 기술개조사업 추진, 조선기와·지붕판·석재·내장재 생산기지 정비 보장
- 이상과 같은 세부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4.11)를 통해
- '07년 예산을 경공업부문에 전년비 16.8%,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에 전년비 11.9%로 대폭 늘려 책정
- * 이들 부문의 예산증가율은 '07년도 예산 평균 증가율 3.3%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

(2) 생산 동향

○ 연도 중 김정일은 1.19 희천시를 시작으로 각지 공장·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

- 김정일은 현지지도시마다 특히 기술개건과 현대화 사업을 강조 하였던 바

- 이는 ‘과학기술 중시’, ‘선진기술 도입’, ‘기술교육 강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시키려는 의도

< 연도 중 김정일 공업부문 현지지도 대상 공장·기업소 현황>

| 시 기 | 대상지역 | 대상 공장·기업소 |
|---------|------|-------------------------------------------------------------------------------|
| 1.19 | 희천시 | ○ 희천공작기계공장,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도자기공장 |
| 1.22 | 평안북도 | ○ 태천4호발전소 |
| 2.7 | 함경북도 | ○ 청진광산금속대학 |
| 3.14 | 평안북도 | ○ 박천건직공장 |
| 6.2 | 강계시 | ○ 홍주청년2호발전소, 강계포도술공장, 강계오리공장, |
| 6.8 | 평안북도 | ○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룡천군 신암협농 |
| 8.5~8 | 함경북도 | ○ 나남탄광기계, 김책제철, 성진제강 등 함북도 금속기계 공업 부문 |
| 8.11~14 | 함경남도 | ○ 28비날론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함흥 목제품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 제련소 |
| 9.1~2 | 자강도 | ○ 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공장, 2월제강종합기업소, 전천착암기 공장, 전천상업관리소 전천공업품상점 |
| 11.19 | 강원도 | ○ 원산청년발전소 언제건설장 |

* 시기는 북한 매체의 보도 시기가 대부분임.

○ 연도 중 김정일의 현지도 비중을 보면 12.26 현재

- 김정일 공개 활동 횟수 총 87회 가운데 경제 분야가 20.7%인 18회를 차지하였으며, 경제 분야 가운데 약 절반 정도를 선행부문 및 기계공업부문을 차지함으로써
- 광·공업부문에서 선행부문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노정

○ 한편, '07.3월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장기업소들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
 - * 「공동순회우승기」는 1958. 3 공장기업소 근로자들의 노력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내각결정 제47호에 의해 제정한 것으로
- 매년 상반기에 실적이 우수한 각급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전년도 과업추진 실적에 따라 당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공동명의로 수여해 왔으며
 - * 2003년부터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우승기」로 명칭을 변경, 수여

<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현황(2002~2007) >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수여단위(개) | 130 | 202 | 284 | 314 | 355 | 313 |

- 전력공업부문은 그동안 건설을 추진해 왔던 어랑천1호발전소(1.26), 삼수발전소(5.9), 등의 완공·조업과 선봉화력의 재가동(9월) 등으로
 - 연도 중 전력생산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 8~9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전반적으로는 전력 생산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
- 특히 중유부족으로 '07.1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온 「선봉화력발전소」가 우리 측의 중유 제공에 힘입어 재가동
 - 북한은 9.6 중방을 통해 동 발전소가 가동 중임을 사실 보도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초기단계 조치로 우리 측이 제공한(7.14~8.2) 중유 5만 톤이 적기에 투입되면서 재가동된 것으로 분석
 - * 「선봉화력발전소」(나선시 소재)는 설비용량 20만kW의 북한 최초의 중유전소식 화력발전소로서 나선시와 함북 북부지역인 회령시·새별군·은덕군 등지에 전력을 공급

- '07년 6월 장마철을 맞아 석탄공업성 등 유관 기관들은 장마철 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장마철에도 석탄생산 정상화 대책을 강구
 - 관계자들은 생산현장에 내려가 장마철 대책을 살펴보고 설비·자재보장,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 장마철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채탄장을 정비하고 옹벽공사와 배수로 정리, 설비보수사업 등을 전개
 - 석탄공업성 아래 모든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도 채탄장 정비, 갱내 배수로 정리, 산업도로 보수 등 장마철 생산대책 강구
- 수해 이후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9.27 중방), 청진강재공장(9.27 중방), 희천강철공장(9.24 중앙) 등 일부 공장 기업소들이 철강재 생산에 주력하였음을 잇따라 보도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공정별로 표준조작법과 기술 규정을 엄수하여 질 좋은 쇳물 증산 주력
 - 청진강재공장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준수하여 연료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제품 생산에 성과
 - 희천강철공장에서는 생산 장성(증가) 예비를 기술개건에서 찾고, 가열로와 선제 압연기의 기술개건사업에 이어 냉간 압연기 제작 추진

- 청진기초식품공장은 생산공정의 무인화·컴퓨터화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고품질의 기초식품인 <토장>을 생산 (6.28, 조선신보)
- 밀폐식 생산공정을 갖추고, 이에 대한 감시와 조종, 기업소의 경영관리 등을 컴퓨터조종실에서 종합적으로 진행
- 특히 장 생산의 기본공정인 곡자공정(메주 만드는 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였으며,
- 모든 기대의 열관리와 온·습도, 압력, 유량의 조종을 컴퓨터로 하고 있고 원료 문제도 자체 생산한 콩으로 해결
- * 동 공장 지배인 김호열은 “외국설비 수입이 아니라 자체 기술혁신에 의한 설비개건으로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고 강조

(3) 주요 건설 동향

<어랑천1호발전소 조업 및 2단계공사 착수>

- 1.26 어랑천1호발전소를 조업 준비 완료와 더불어 2단계 공사를 착수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돌격대원들은 물길 굴 뚫기에 경주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돌격대원들은 연속천공·발파 작업을 하면서 취수 갱 건설 추진
- 언제건설을 맡은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건설자들은 언제건설 준비사업에 성과
- 무산광산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언제좌우안 기초굴착 진행
- * 함경북도 어랑군에 위치한 어랑천발전소는 '88년 착공되었으나 '90년대 경제난으로 공사 진척이 부진하다가 '00년 8월 김정일 현지도도 이후 공사가 재개된 대규모 수력발전소임.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 지속 추진 및 2호발전소 건설 착수>

- o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는 '07.9월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건설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2호발전소 건설에 착수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휘부에서는 언제콘크리트치기 속도를 높이면서 2호발전소 건설 동시 추진에 역량 집중
-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는 언제기초타입을 끝내고 언제쌓기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호발전소 건설에도 역량 집중
-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舊 백암발전소) 백두산지구 전력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건설을 맡기하여 '02.10.23 착공, '04.7.2 동발전소 건설 과업을 청년동맹에게 제시하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로 개칭

<삼수발전소 준공>

- 북한은 5.9 대규모 사석연제발전소인 삼수발전소를 완공하고
 - 5.9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광범기(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 진행
- 삼수발전소는 '04.5.7 착공해서 양강도를 비롯한 자강·황남·함남·평안도의 작업인력과 군인·돌격대가 대거 동원, 3년 만에 건설된 5만kW급 대규모 수력발전소로서
 - 수자원이 풍부한 허천강(유역면적 5,140km², 수자원 348,286m³로 북한내 4위)과 운총강을 이용하여
 - 삼지연지구 전기문제 해결에 기여

<자강도내 20여개 중소형발전소 건설 추진>

- 자강도는 연도 중 연하·귀인·천수 발전소 이외에 공장·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자체 건설 발전소 들을 포함하여 2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 추진(2.6, 평방)
 - 특히 만포시 연하발전소는 당 창건 55돌(2000년)에 즈음,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라”는 당의 방침 하에 착공되어

-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 에서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 7여년에 걸쳐 건설 중인 1,000kW(2002.6.14 중방)급의 중소형 수력발전소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

- o 북한의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와 황해북도청년돌격대는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건설 마감공사를 추진(9.20, 평양)
 - 9.20 현재 강동수력 건설연합기업소는 수해 복구에 주력하면서 압축기, 양수기 등 설비들의 정비·보수 작업 전개
 - * 예성강발전소는 8.10 집중호우로 언체기중기, 주행로, 철근 등 건설 자재가 유실(8.23 중방)
 - 황해북도 청년돌격대는 수로 굴착을 끝내고, 하류옹벽 증축 공사를 추진
 - 청년전위 결사대원은 진수정 2구획 공사를 끝낸 데 이어 진수정 1구획 가물막이 공사와 굴착공사에 주력
- o 예성강발전소(황북 토산군)는 황해도에 건설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발전소로서
 - 임진강 물을 예성강 쪽으로 돌려 설비용량 10만kW(1~5호)의 전력(2001.7.12, 노동신문)과 관개용수 및 개성공단 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 그동안 동 발전소 건설에 군인들과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건설인력 등이 동원되었으나
- 건설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하자 「예성강발전소」를 「예성강 청년발전소」로 개칭하고 청년돌격대원들을 건설공사에 집중 투입

(3) 평 가

- o '07년도 북한의 광공업은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과 경공업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자력갱생에 의한 증산에 주력
- o 그러나 투자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적극적인 신규 투자보다 전력, 석탄, 금속 등 일부 관심부문의 기존 산업설비 정비·보수에 그치는 한계를 노정
- o 특히 8~9월의 이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각 산업 시설이 유실·파괴됨으로써 광공업부문의 생산은 대부분이 전년도 보다 위축된 것으로 평가

다. 수송 및 도시경영

(1) 세부정책목표

- '07년도에 수송부문은 농업·임업·광공업 등 다른 부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철도수송 능력 확대를 강조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4.11)에서 채택된 「'06년 사업정형과 '07년 과업」을 통해
 - 북한은 철도운수부문에서 철길표준화사업 강력 추진, 기관차·화차 생산 및 수리 강화, 수송조직 확대 및 개선 등으로 수송의 긴장성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언급
- 이를 위해 북한은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을 전년 보다 11.9% 내외 수준으로 크게 늘려 편성
 -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의 전년비 증가율을 11.9%로 책정
- 도시경영 및 국토관리부문에서는
 - 평양시는 보수정화시설 개선, 가로등·불장식(네온 사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 도 소재지 등 중요 도시들과 농촌들은 도로건설·보수, 산림 조성, 강·하천 정리 등으로 선군시대에 맞도록 조성

- 특히 평양시와 함흥·청진·신의주·강계·사리원 등 주요 도시와 모든 시, 군들에서 주택문제 해결

(2) 관련 동향

- o 연도 중 함흥철도국은 철길(레일) 강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고 발표 (4.23 평방, 4.24 중방)
 - 참모부는 철길소음을 줄이고 철길강도 제고에, 용접대는 용접 설비를 만가동하여 레일의 이용도 제고에 주력
 - 함흥철길대 청년기계화 기동작업반은 용접대가 이은 레일을 즉시 담당구간에 설치하는 등 철길 강도를 높여 레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
- o 평양시는 2.2 도시경영상,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경영성 부상,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국장과 쿠웨이트아랍경제개발기금대표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시 상수도 개건대상 준공식 개최(2.3 중방, 2.6 조선신보)
 - 최종건 도시경영상은 준공사를 통해 '03.8월(공사 착수) ~ '06.9월(공사 완공) 기간 중 노동자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 공사를 지원해 준 쿠웨이트아랍경제개발기금에 대해 사의를 표명

- * 북한은 「평양시 개건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02. 3월 이후 쿠웨이트로부터 차관 2,000만 달러를 도입, 노후 수도관 교체, 오수 정화장 건설 등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 o '07년도 국토관리사업은 종래와 달리 살림집 건설 등 주민 생활 개선사업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특징
 - 북한의 국토관리사업은 매년 봄(3·4월)·가을(10·11월) 두 차례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여 국토의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 종래에는 홍수피해 복구, 토지정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종전과는 달리 도로·주택건설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개선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

(3) 평 가

- o 북한의 수송운수체계는 지나치게 철도수송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도편중의 수송체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특히 철도수송 편중에서 비롯된 수송의 긴장성은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o 연도 중 철도수송은 8·9월 수해로 인하여 주요 철도 노선이 상당부분 유실됨으로써 그 수송 실적이 더욱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

○ 또한 도시경영 및 국토관리부문에서는

- 주민생활 향상책의 일환으로 도시 미화, 주택 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 내용면에서 보면 대규모적인 건설보다 낡은 아파트 보수 등 도시 미관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에 그쳐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

라. 과학기술

(1) 세부정책목표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경제 강국 건설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서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4.11)의 첫째 의정인 「'06년 사업정형과 '07년 과업」에서는

- '07년도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종료년도인 만큼, 동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차기 5개년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강조
- 동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세부 정책목표(과업)을 보면
 - 과학연구부문에서는 핵심 기초기술과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서 결정적 전진 이룩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주력, 인민경제의 정보화 실현 및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보급 추진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과학기술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고
-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06년도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60.3%로 대폭 늘리고
 -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발전사업비로 돌리는 새로운 조치 시행

(2) 주요 과학기술 동향

- 연초부터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목표로 '경제와 과학기술 일체화 정책' 아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 개선·현대화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

- 모범적인 「과학기술 돌격대」 활동 선전을 통해 신년 공동 사설에서 제시된 '모든 부문·단위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 밀착' 목표 재차 강조
- 농장, 공장·기업소 등 산업현장에서 응용기술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 돌격대」를 현장에 파견, 적극 활용

< 북한의 주요 과학기술돌격대 현황 >

| 명 칭(조직원) | 설립일 | 주요 활동 동향 |
|----------------------------|-----------|-------------------------------------------------------|
| 2·17과학자·기술자 (2만6천여명) | '78.2.17 | 과학원·각급 연구기관·주요 공업대학 등의 과학자·기술자·연구사·교수로 구성 |
| 4·15기술혁신 (12만여명) | '80.11.20 | 신기술개발·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각급 공장·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기술자 집단 |
| 기술혁명소조 (3대혁명소조 4만여명) | '73.2.10 | 대학생·과학자·기술자 등 미혼남녀들로 선발하여 공장·기업소 등에 20~50명의 단위 소조로 파견 |

- o 특히 연도 중 「2.17 과학자·기술자 돌격대」가 각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과학혁명, 기술혁명으로 여러 공장·기업소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발표(9.6, 중방)

< 2.17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활동 선전내용 >

| 구 분 | 주요 내용 |
|-------------|-----------------------------------------------------------------------------------------------------------------|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 ○ 남덕탄광·인포탄광에서 묽음식 동발에 의한 광폭식 채탄법 도입으로 채취율 향상 |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 ○ 채광공정에 채굴대차와 침착기 등 채굴설비 도입 ○ 수평분층묽음식 채광법과 발파에 의한 층단식 채광법도입으로 생산성 2배 향상 |
| 평양시 상수도개건사업 | ○ 상수도시설 전반의 구성상 특징과 운영방식에 맞는 우리식의 원격감시 및 조종체계 완성 |
| 희천공작기계공장 | ○ 컴퓨터지원설계와 유연생산체계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컴퓨터에 의한 설계, 모의, 해석 및 공정작성을 실현 ⇒ 설계속도 향상 |
| 평양고무공장 | ○ 원료를 자동으로 공급·개량·투입하는 질량수감장치 도입 ○ 새로운 접착제 개발, 저온플라즈마처리기술 도입으로 접착강도 향상, 묽음식 성형기 개발로 고무제품의 당김세기와 수명연장 ⇒ 생산상 향상 |
| 용복식료공장 | ○ 20여대의 묽음식 가공설비들을 새로 설계 제작 |

○ 산업부문별로는 4대 선행부문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많은 것으로 선전(10.8, 평방)

- **전력공업부문** : 대규모 수력발전소 설비관리·운영의 현대화·정보화, 수력발전 원천의 합리적 이용, 화력발전소 보일러 운영방법, 생산전력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공급체계 등
-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부** : 석탄자원 탐사에 첨단기술과 방법을 도입, 광폭식 채탄방법으로 채취율 제고
- **금속공업부문** :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 등 제철, 제강소들의 기술개건사업에서 성과

- 철도운수부문 : 전기기관차 전동기 수리에 필요한 전연물을 북한식으로 개발·생산
- o 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보면 농업과학원에서는 새로운 논벼품종 전면 도입에 따른 과학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감자, 목화 등 품종들의 다수확 종자 생산 대책을 강구
- 농산과 축산 등 모든 부문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도 추진
 - * 북한은 '03년부터 농업성과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알곡 800만톤 생산을 위한 정보기술개발·도입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1단계('03년): 황해남도 본보기 단계→2단계('04년): 각 도 본보기단위 확대 단계→3단계('05~'07년): 전국도입단계)
- o 국가과학원 발명국은 '07년 상반기 중에 500여건의 발명, 1,000여건의 신기술 및 창의고안들을 십의 등록되었다고 발표(6.20. 조선신보)
- 십의 등록된 발명들은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에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 전력의 공급·관리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공업용 3상 카드식 적산전력계」, 압축공기에 의한 장거리관수송체계인 「노즐 가압식 광액 공기관 수송방법」 등이 대표적
- o 김책공대는 기관·기업소 및 가정에서도 유능한 동 대학 교원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센터를 신설(1.22, 중앙통신)

- 원격교육체계프로그램 '리상'을 개발, 북한식의 원격교육 기초를 마련하고
- o 2006. 4월 이래로 내부 컴퓨터망인 「광명망」을 통해 전국 각지 대학생·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제한적 사이버 교육을 확대·개편
- o 또한 김책공대는 자체 기술로 북한의 지형학적 및 기상기후 조건에 맞는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개발(3. 5 조선신보)
 - 수평접이식 조속장치 개발, 가벼운 유리섬유 강화 복합수지에 의한 회전날개 등으로 정격 출력이 가능
 - 이번에 개발된 풍력발전기의 전기 생산원가는 수력이나 화력 발전기의 3분의 1정도
- o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는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3세대 수력발전기 수차바퀴」를 개발(3.12, 조선신보)
 - 2세대 수차바퀴 제작 경험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고, 3세대 수차바퀴(터빈) 제작을 단번 시험으로 성공
 - 모든 수력발전소 수차바퀴를 3세대로 교체하는 경우 대형수력 발전소의 전력생산량과 맞먹는 전력예비 획득 가능
- * 현재 북한의 중소형 수력발전소에서는 후렌시스 터빈, 카프란 터빈, 충동 터빈, 물레방아식 터빈 등을 사용

- 국가과학원 컴퓨터과학연구소는 전기절약을 위한 공업용 「3상 카드식 적산전력계」를 연구·개발(4.1 조선신보)
 - 동 적산전력계는 중앙처리소자카드를 통해 사용할 전력량의 계약, 전력소비량의 결산, 전력사용 내역 등을 자동으로 파악·통제할 수 있는 지능말단계량 및 조작기구
 - 이는 전력공급, 통제, 전력관리를 컴퓨터화한 4세대 적산 전력계로서 실용적 가치가 커서 현재 국가과학원 산하 여러 공장·기업소, 편의봉사망 등에 이미 도입
 - * 공급원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면서 회계를 하여 종전 카드식 적산 전력계의 결함을 극복(동 적산전력계를 도입한 곳은 전력소비가 종전의 1/3로 감소)
- 5.3~5.7 기간 중에는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22차 중앙과학 기술축전을 개최
 - 지방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40여명이 참가했으며 각종 과학기술 성과를 18개 분과로 나눈 다음,
 - * 중앙과학기술축전 이전에 개최된 지방과학기술 축전에는 전국 3천여 개의 단위들에서 56,000여명의 과학자·기술자 등이 참가
 - 최신 과학기술성과 토론회, 기술혁신 성과 발표회, 도의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합 평가
 -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과 농업·경공업 부문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들의 출품을 강조

<최근 「전국(중앙·지방) 과학기술축전」 개최 현황>

| 연도 | 지방과학기술축전 | | 중앙과학기술축전 (출품건수) |
|-------|-----------|-----------|--------------------|
| | 참가규모 | 출품건수 | |
| 2002년 | 76,000여 명 | 40,700여 건 | 500여 건 |
| 2003년 | 56,000여 명 | 40,000여 건 | 200여 건 |
| 2004년 | 44,000여 명 | 29,700여 건 | 400여 건 |
| 2005년 | 48,400여 명 | 미발표 | 430여 건 |
| 2006년 | 미발표 | | 500여 건 |
| 2007년 | 56,000여 명 | 미발표 | 570여 건 |

- 이와는 별도로 8월 중에는 환경보호·나노·보건·해양 등 40여개의 부문별 과학기술발표회를 개최, 82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발표한 데 이어
 - 9.7에는 김일성의 「산림조성산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발표 60돌과 김정일의 장산식목 50돌을 즈음, 산림·식물·토지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토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하였고
 - 9.12~13 기간 중에는 대내외 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하였으며
 - 10.23~24 기간 중에는 국가과학원 창립 55돌을 기념하여 「전국과학기술발표회」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
- 대외적으로는 발명총국 대표단(4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9.24-10.3)에 참석

- 동 총회에서 북한은 지적재산권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내년에 평양에서 개최할 계획인 「지적재산권 국제세미나」 문제를 중점 협의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UN 산하기구. 매년 가을 제네바에서 WIPO 총회를 개최 (북한 1974년 가입)
- o 국가과학원 대표단(단장 : 이성욱 부원장)은 9.20~22 기간 중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동북아 첨단기술 박람회」에 참가
 - 이번 박람회에는 남북한·중·일·러·몽골 등 동북아 6개국이 참석하여 IT·BT·에너지 분야 등의 첨단기술 제품 전시 및 기술 토론회를 진행
 - 중국 과기부·국무원 동북진흥관공실 등 주최로 심양시 컨벤션 센터내 3만㎡ 면적에 총 2천여 개의 전시 부스 설치
 - 북한은 동 박람회에 IT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 연구소들의 제품을 출품

(3) 평가

- o 북한은 '07년도에 추진해야 할 중점적인 정책방향으로 '생산과 기술의 밀착화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

- 산업부문별로는 전력·전탄·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 부문과 농업·경공업 부문 관련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
- 기술 혁신보다 기존 설비·장비의 개선을 통한 생산 정상화에 중점
- o 이를 위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4.11)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예산지출을 전년비 60.3%로 대폭 증액 편성
- 또한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 발전사업비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
- o 연도 중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각종 선동과 더불어 전람회, 축전 등 다양한 과학기술행사가 지속 강조 되었으나
 - 선진 첨단기술 도입, 신기술 개발, 과학기술 전문인재 양성 등에 있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실적이 엿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 일부 정책적 중점산업부문(특히 4대 선행부문)에서 기존 설비의 성능 향상과 보급 노력으로 생산 정상화에 다소간 기여한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

4. 대외경제 동향

가. 대외 정책방향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4.11)에서 과업보고를 통하여 '07년 대외정책방향을 제시
 - 신년공동사설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운영 방침을 강조 하였으나, 대외경제사업에 대해서는 미언급

- '07년에 설정된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면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대외경제사업 개선으로 수출품 생산을 증대하고
 - 무역의 다양화·다각화로 무역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 다른 국가와의 경제기술 협조와 합영·합작의 적극 실현을 제시

- 이상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핵문제, 대북경제재제 등으로 어려워진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대외경제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하여 경제력 회복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나. 대외 무역

○ '0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 6자회담의 진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계속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 중국, 태국, 러시아 등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 이외의 무역활동이 정체

○ '07.10월 현재 북한의 주요 상대국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 북한의 對중국 수출은 4.8억달러로 '06년에 비하여 29.3% 증가하였고, 수입은 11.3억달러로 11.8% 증가, 총액은 16.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
- 북한의 對태국 수출은 0.3억달러로 '06년에 비하여 80.3% 감소하였고, 수입은 1.6억달러로 16.1% 감소, 총액은 1.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
- 북한의 對러시아 수출은 0.28억달러로 '06년에 비하여 99.4% 증가하였고, 수입은 0.73억달러로 41.2% 감소, 총액은 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9% 감소

* 단, 북러무역 통계는 '07.9월 현재 기준임.

- 북한의 對일본 수출은 전무하고, 수입은 7백만달러로 '06년에 비하여 82.5% 감소, 총액은 7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2% 급감

< '07.1~10월 중 북한의 對 주요국 무역 >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07년 1~10월 | | | 2006년 1~10월 | | | 증가율 | | |
|-----|-------------|-----|-------|-------------|-----|-------|-------|-------|-------|
| | 총액 | 수출 | 수입 | 총액 | 수출 | 수입 | 총액 | 수출 | 수입 |
| 중국 | 1,610 | 481 | 1,129 | 1,382 | 372 | 1,010 | 16.5 | 29.3 | 11.8 |
| 태국 | 196 | 32 | 164 | 358 | 163 | 195 | -45.3 | -80.3 | -16.1 |
| 일본 | 7 | 0 | 7 | 119 | 77 | 42 | -94.1 | -100 | -82.5 |
| 러시아 | 101 | 28 | 73 | 140 | 14 | 126 | -27.9 | 99.4 | -41.2 |

*단, 對러시아 무역통계는 1-9월 현황

o 수출입구조를 보면

- 태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상대국과의 교역이 감소한 반면에 중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 '06년에 비하여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적자 현상이 악화되었고
- 전체 무역규모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06년도 무역실적: 총 30억 달러(수출 9.5억 달러, 수입 20.5억 달러)

o 주요 수출입 상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연료, 수산물, 광산물, 철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등 에너지, 곡물, 육류 등과 함께 차량, 전기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등 필수품목 및 가공제품으로 구성

다. 대외 경제협력 동향

(1) 국가간 경제협력 동향

□ 중국

- 북한은 「제18회 하얼빈 무역상담회(6.14~19)」, 「제2회 단동시 북한수출입상품전람 및 북·중경제무역투자상담회(6.26~29)」, 「제2회 길림 동북아 투자박람회(9.2~6)」에 참가
- 북한(이용남 무역성 부상)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제3차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회의 개최(9.4)
 - 同 회의는 광업·제철부문 투자, 무역 촉진 등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문제를 협의
- 중국은 북한 최초의 단일국가 무역전람회인 「중국경공업 제품 무역전람회」를 평양에서 개최(7.17~19)

- 同 전람회는 북한 주민의 참관이 허용되었으며, 100여개 생필품 관련 합영·합작이 논의되었음.

□ 러시아

- 「나훗카」 주제 북한 총영사 심국룡은 연해주 주의회 의장 (빅토르 고르차코프)과의 회담을 통해 APEC 관련 블라디보스톡 개발 공사에 북한의 참여의사를 표명(1.30)
 - 북한은 2012년 APEC 회의 대비 블라디보스톡 개발을 계기로 북한의 노동력을 비롯하여 시멘트, 유리 등의 전자재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임경만 무역상)과 러시아는 제4차 「북-러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정서 조인(3.22~29)
 - 同 회의는 6년만에 재개되어 △북-러간 채무문제 △북-러간 철도연결사업 △에너지 협력문제 등의 경협문제를 협의
- 북한(박재춘 임업성 부상)은 러시아와 평양에서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에 조인(5.22)
 - 同 회의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북한 벌목노동력 송출문제, 목재생산 및 분배문제 등 북-러간 임업부문 협력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러시아 사할린주 정부와 평양에서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공동실무그룹」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에 조인(11.14)
- 同 회의는 평양과 사할린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연례회의로 농업·임업·건설업 및 에너지부문 등의 경협문제를 협의

□ EU

- 북한과 EU는 평양에서 「북한·유럽동맹 경제토론회 (DPRK-EU Economic Seminar)」를 개최(10.23~24)
- 농업·경공업·IT 등 개별 산업 및 금융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북·EU 경제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 '04~'07 「북한·EU 경제 세미나 (경제개혁 워크숍)」 현황 >

| 구분 | 기간 장소 | 북측 참가 | EU측 참가 | 회의내용 |
|-----|------------------------------|-------------------|--------------------------------------------|---------------------------------------------------------|
| 제1차 | 2004.8.31-9.4 (5일간) 평양 | 외무성 관계자 등 70여명 | EU위원회·EU의회 나우만재단 관계자 등 24명 | ○ EU-북한간 경협 발전 방안 ○ 경제개혁 지원 국제협력 사례 ○ 북한경제 현대화 방안 |
| 제2차 | 2005.10.11-14 (4일간) 평양 | 외무성 관계자 등 | EU위원회·EU 8개국 경제인사 나우만재단 관계자 등 26명 | ○ 경제관리에서 국가 역할 ○ 외자유치 조건·전략 ○ 국영기업·농업 구조조정 |
| 제3차 | 2007.10.23-24 (2일간) 평양 | 조선상업회의소 관계자 등 | EU위원회·EU의회 대표단 각국 외교관 경제전문가 등 | ○ 농업·경공업·IT 등 산업 분야 ○ 금융분야(결제시스템) 등 |

* '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으로 미개최

○ 이외에도 연도 중 북한은 EU와

- △ 「북한·EU 기업간 워크숍」을 개최(3.28~29)하고 △ 「북한·EU 기업인간 교류·통상 촉진을 위한 무역조정이사회 설립 규약」에 합의(7.29)하는 등
- EU본부 및 유럽 개별 국가·기업 차원의 다방면적 경제 교류 확대를 모색

□ 기타국

- 북한과 베트남은 「2007-2008년 규격화 계량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에 조인(4.12)
- 평양 명당무역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 건설회사는 평양에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와 운영을 위한 합영계약을 체결(7.13)
 - 양자간 시멘트 분야에서의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 및 운영을 위한 합영 계약을 체결
 - 오라스콤사는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생산능력을 늘리는 한편, 향후 나선경제무역지대, 광물생산, 발전소, 항만 등에 투자할 계획
- * 오라스콤사는 상원시멘트에 1억 1,500만달러 투자하고 동 기업소 지분의 50%를 취득할 예정(7.16 FT 보도)

- 북한 경제대표단이 이란·시리아를 방문, 경제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8.4~14)
 - 이란에서는 상공부장관 및 석유부장관과 경협확대방안을 협의(8.4~11)
 - 시리아에서는 무역부장관과 「제5차 北-시리아 경제공동위」를 개최, 무역·금융·과학기술분야 협력 등을 논의(8.11~14)
- 태국 「록슬리 태평양 주식회사」 대표단(단장: '징자이 한찬라쉬' 록슬리사 부총사장)이 방북(9.1~4)
 - 同 대표단은 평양에서 개최된 「동북아전화통신회사 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동북아전화통신회사(NEAT&T) 통신 설비의 관리운영 문제들에 대해 합의(9.3)
 - * 특히 휴대전화 일반서비스를 장기간 정지한(특정계층 및 외국인에게는 일부 허용)데 따른 이동통신 설비관리 문제 등도 협의하였을 가능성
- 북한(리명산 무역성 부상)과 몽골은 평양에서 제3차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약위원회 제7차 의정서」 조인(10.10)

< 07년 주요 북한 경제대표단 대외방문 >

| 기 간 | 대표단(단장) | 국가명 | 방 문 목 적 |
|-------------|----------|-------------|---------------------------------|
| 3.20~27 | 임경만 무역상 | 러시아 | ○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 개최 |
| 5.11 | 김영일 외무부상 | 이 란 | ○ 북-이란 경제분야 등 협력확대 합의 |
| 6.25~ | 리명산 무역부상 | 아프리카 각 국 | ○ 아프리카 각국 순방 및 경협논의 |
| 7.24~26 | 김영남 위원장 | 알제리 | ○ 북-알제리 경협 및 부문별 협력 논의 |
| 8.4~11 | 임경만 무역상 | 이 란 | ○ 북-이란 에너지 등 경협방안 논의 |
| 8.12~14 | 임경만 무역상 | 시리아 | ○ 「제5차 북·시리아 경제공동위」 개최 |
| 9.4 | 이용남 무역부상 | 중국 | ○ 북-중 광업 부문 등 경협확대 논의 |
| 10.4 | 리명산 무역부상 | 몽골 | ○ 북-몽골 경협확대 방안 논의 |
| 10.18~11.1 | 김광영 임업부상 | 러시아 | ○ 북-러 임업분과위 12차회의 참석 |
| 10.26~10.30 | 김영일 내각총리 | 베트남 | ○ 북-베트남 경협 및 농업과학기술 부문 협력 논의 |
| 11.1~11.4 | 김영일 내각총리 | 캄보디아 | ○ 북-캄보디아 투자장려및 보호 등 합의 |
| 11.4~11.7 | 김영일 내각총리 | 라오스 | ○ 북-라오스 경협 및 부문별 협력 논의 |
| 11.21~24 | 임경만 무역부상 | 칠 레 | ○ 북-칠레 광·농·임업 등 경협확대 방안 논의 |
| 11.25~30 | 임경만 무역부상 | 쿠 바 | ○ 북-쿠바 '08년 상품교류 의정서 조인 등 |

< 07년 주요 대외 경제대표단 북한방문 >

| 기 간 | 대표단명(단장) | 국가명 | 방 문 목 적 |
|----------|-----------|-----|------------------------------|
| 1.13~19 | 오라스콤전통신회사 | 이집트 | ○ 북-이집트 전기통신분야 협조 |
| 1.18~20 | 외무성 대표단 | 이 란 | ○ 북-이란 07-09 문화 및 과학교류 합의 |
| 2.27~3.1 | 오라스콤전통신회사 | 이집트 | ○ 북-이집트 전기통신분야 협조 |
| 5.21~23 | 러임업성 대표단 | 러시아 | ○ 북-러 임업분과위 11차회의 참석 |
| 7.13 | 오라스콤건설회사 | 이집트 |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 방안 |
| 9.1~4 | 록슬리태평양社 | 태 국 | ○ 통신관련 설비 관리·운영문제 논의 |
| 10.6~11 | 몽골 경제대표단 | 몽 골 | ○ 북-몽골 경제무역 관련 제 차례회의 의정서 조인 |
| 10.9~13 | 체코 경제대표단 | 체 코 | ○ 북-체코 경협방안 논의 |
| 10.23~27 | EU 경제대표단 | EU | ○ 북-EU 및 소속 각국 경제교류 논의 |
| 11.14 | 사할린州政府대표단 | 러시아 | ○ 북-사할린주 임업부문 경협 논의 |

(2) 전람회 관련 동향

○ 북한은 투자 유치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제1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5.14~17)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13개국 167개 기업이 참가

- 주요 전시품은 공장기계, 합금강재, 전기·전자제품, 석유 화학제품, 자동차, 자전거, 의약·식료품 등 800여종 20,000여점

<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현황 >

| 시 기 | 주 요 내 용 |
|--------------------|-------------------------------------------------------------------------|
| 제 1 차 (1996.5) | 외국업체 불참, 대내행사적 성격 |
| 제 2 차 (1999.5) | 외국업체 불참, 대내행사적 성격 |
| 제 3 차 (2000.5) | 10개국(중국·러시아·영국·오스트리아·쿠바·태국·일본·방글라데시·대만 등) 참가 |
| 제 4 차 (2001.5) | 13개국(중국·독일·이탈리아·호주·,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대만·태국·쿠바·러시아 등) 참가 |
| 제 5 차 (2002.5) | 16개국(중국·일본·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태국·인도네시아·시리아 등) 참가 |
| 제 6 차 (2003.8) | 6개국(중국·독일·태국·말레이시아·대만 등) 참가 * 당초 2003.5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SARS의 영향으로 3달 연기 |
| 제 7 차 (2004.5) | 7개국(중국·태국·시리아·말레이시아·대만, 이탈리아 등) 참가 |
| 제 8 차 (2005.5) | 10여개국(중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루마니아·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스웨덴 등) |
| 제 9 차 (2006.5) | 12개국(중국·시리아·태국·에스파냐·스웨덴·프랑스·체코·스위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대만) * 남측참관단 참석 |
| 제 10 차 (2007.5) | 7개국(중국, 러시아, 독일, 방글라데시, 오스트랄리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참가 |

- o 봄에 이어 가을에도 북한은 「제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에 주력(10.8~11, 「3대혁명전시관」)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10여개국 80여개 기업이 참가
- 주요 전시품은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운전기재, 석유 화학제품, 의약품, 각종 일용품, 식료품 등

<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현황 >

| 시 기 | 주 요 내 용 |
|--------------------|--------------------------------------------------------------------------------------|
| 제 1 차 (2005.10) | 9개국(중국·네덜란드·루마니아·말레이시아·스웨덴·이탈리아·일본·태국·대만) |
| 제 2 차 (2006.9) | 10여개국(중국·이탈리아·영국·스위스·독일·태국·벨로루시·인도네시아·홍콩 등) |
| 제 3 차 (2007.10) | 10여개국(중국·러시아·네덜란드·독일·몽골·벨기에·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영국·프랑스·핀란드·폴란드 등) 참가 국가간 경제적 협력과 교류 강화 계기 |

라. 평 가

○ '0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 2.13 미·북간 합의로 북핵문제가 급진전됨에 따라 대외 경제환경과 여건이 전년에 비해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과의 교역이 침체되어 전반적으로는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평가

- 내용면에서도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불균형한 수출입구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음.

*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對중국 무역비중은 56.7%

- o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연도 중 북한은 국제상품전시회·투자 설명회 참가·개최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교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 해외상품·선진기술 정보를 획득하고 남한 및 외국과의 합영·합작사업 및 무역 증대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시현
- o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사업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실리적인 무역 및 경제활동으로 다양화·다각화를 모색하지 않는 이상 동 부문에 봉착한 구조적 애로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5. 종합평가와 전망

가. 2007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 북한은 '99년 이래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저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전히 경제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02년 「7.1조치」 이후의 성장률은 '02년 1.2% → '03년 1.8% → '04년 2.2% → '05년 3.8% 등 소폭 성장세
 - * '06년은 건설부문 및 농업부문 생산 감소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1.1%)
- '07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
 - 자력갱생 원칙 강화에 기초한 대내경제 중심 운용과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데 주안점
 - * 김정일 현지도, 내각 전원회의, 각종 경제선동 모임, 대규모 黨·근로단체 및 계층별 군중대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체제 결속 도모
 - 「생산·과학 일체화」 기조下 全부문·단위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노후화된 기존 설비 개량 차원에 머물러 획기적 생산 정상화로 직결되기에는 미흡
 - 경제관리 개선은 새로운 변화 모색보다 수입증대 조치, 생산 증대를 위한 조치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에 주력

- 연간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평가
 - 3년째 농업 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추진력이 다소 약화
 - 반면, 광공업부문에서는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4대 선행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서 정책적 관심 강화

- 북한의 대외무역 및 경협은 예년 수준으로 평가
 - 북한은 국제상품전시회·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교류 확대 의지를 표명
 - 단, 대외정세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外에는 실질적으로 이뤄진 별다른 실적이 없어 전반적인 대외무역·경협은 예년 수준일 것으로 평가
 - 한편 '6.15시대', '우리민족끼리' 등을 앞세움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성과를 거양

- '07년 북한경제 성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북한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제로성장에 가까운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

나. 2008년 북한경제 전망

- '08년 북한경제는 「2012년까지 경제난 타개」 목표 하에 기간산업 생산능력 제고, 주민 기초생활 여건 향상 등 내부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
 -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축산업부문 증산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생필품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경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
 - * 북한은 연말 지식인대회 등을 통해 「08~12년 5년간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통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쫓힐 것”을 천명
- 경제개선조치는 전반적으로 실리추구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통제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대외경제는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대외무역과 경제교류·협작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 경제제재 등 고립 국면을 타개하고 경제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전망
- 단, '08년 역시 경제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경제성장의 돌파구는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부록 1>

< 2007년도 경제분야 관련 행사 개최 현황 >

| 시 기 | 내 용 |
|-----|----------------------------------------------------------------------------------------------------------------------------------------------------------------------------------------------------------------------------------------------------------------------------------------------------------------------------------------------------------------------------------------------------------------------------------------------------------------------------------------------------------|
|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1.1, 중방) • 김책工大, 김정일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1.4, 중방) • 평안 남북도, 1.5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진행(1.5, 중방) • 함경남도, 1.5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진행(1.6, 중방) • 자강도· 황해남도, 새해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진행(1.8, 중방)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등, 공동사설 과업관철 궐기모임 진행(1.12, 중방) • 원산철도차량공장, 1.18 김일성 현지지도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1.19, 중방) • 희천공작기계공장, 1.24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궐기모임 진행(1.25, 중· 평방) |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건된 동평양대극장에 대한 건축미학토론회 진행(2.2, 중· 평방) • 함경북도, 2.12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개최(2.13, 중방) • 평양기포부재공장 창립 20돌기념 보고회, 2.13 현지에서 진행(2.15, 중방) • 2.16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2.15, 중방) • 러시아, 2.6-9 北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진행(2.19, 평방) • 2.24 김정일의 문천금강제련소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2.25, 중방) • 신천군 새날농장, 2.25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2.26, 중방)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남도 근로자들, 식수절 맞아 궐기모임 진행(3.2, 중방) • 인민무력부 인민군, 수렴화 원림화하기 위한 궐기모임 진행(3.2, 중방) • 제22차 전국과학기술 축전 진행(3.9, 중방) • 상업성 중앙도매소창립 60돌기념 보고회 진행(3.11, 중방) •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3.20, 중방) • 전국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3.20-21 평양에서 진행(3.22, 중· 평방) • 北,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진행(3.29, 중방) • 北 박천전직공장 종업원들, 김정일 지시관철 결의모임 진행(3.31, 중방) • 北, 3.30 평양통신기계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3.31, 중방)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 4.11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4.11, 중방) • 재령군 김제원협동농장, 김일성 현지지도 60돌기념 보고회 개최(4.13, 중방) • 불가리아 등, 북한 도서·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개막식 등 진행(4.13, 평방) |

| 시 기 | 내 용 |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 4.10-13 금강산에서 진행(4.13, 평방) • 대성종합직매점, 인민소비품 전시회 진행(4.17, 중방) • 평양제사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4.19, 중방)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제13차 회의, 4.18-22 평양에서 진행(4.22, 중방) • 北, 4.26 라선식료공장 조업식(4.27, 중방)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협동농장, 벼 모내기 궐기모임 진행(5.1, 중방) • 5.1절 117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5.1, 중방) • 5.3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5.3, 중방) • '제7차 5.21 건축축전' 개최 예정(5.6, 중방) • 제5차 남북 장령급 회담 5.8 진행(5.9, 중방) • 5.9-10 수의방역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5.11, 중·평방) • 5.10 제2차 건축미학 토론회 진행(5.11, 중·평방) • 제1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5.14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5.14, 중·평방) • 北, 5.10-15 제7차 5.21건축축전 개최(5.16, 중방)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악산생물공장 조업식, 5.31 진행(6.1, 평방) • 홍주청년2호발전소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촬 궐기모임 진행(6.10, 중방) •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6.11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진행(6.12, 중방) •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촬 궐기모임 진행(6.14, 중방) • 원산구두공장, 6.19 새로 조업(6.20, 중방)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공동성명발표 35돐기념(평양시보고회 진행)(7.4, 중방) • 총련 금강보험주식회사, 7.6 창립 30돌 기념모임 진행(7.10, 평방) • 평안남도, 철도운수부문 지원사업 전개(7.21, 중방) • 국제감파과학토론회(7.23-24) 평양에서 진행(7.25, 중방) • 통일거리에 낙랑대성피복공장 조업(7.31, 평방)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해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8.1, 중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연속조괴공정 조업(8.1, 중방) • 김정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시찰(8.8, 중방) •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및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8.11, 중방) • 김정일, 함흥목제품공장 현지지도(8.13, 중방) • 김정일, 단천광산기계공장 및 단천제련소 현지지도(8.14, 중방) • 김정일,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현지지도(8.14, 중방) • 락연광산, 1선광장 개건조업(8.14, 평방) |

| 시 기 | 내 용 |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담공장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개최(8.21, 중방) • 8.22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8.22, 중방) • 북한, 공청 창립 80돌 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8.23, 중방)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진행(8.23, 중방) •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8.23 평양에서 개막(8.24, 중·평방) • 김일성의 개성피복공장 현지지도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8.24, 평방) • 제8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경연과 제15차 전국중학교 학생들의 학과경연 진행(8.25, 중방) • 만경대담공장 및 룡성담공장, 김부자 현지지도 40돌 기념 보고회 진행(8.28, 중방) • 평양시 건설지도국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8.28, 중방)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만포시내 공장기업소들 현지지도(9.1, 중방) • 9.4-7 제5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진행(9.8, 중방) • 산림·식물·토지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토론회 진행(9.8, 평방) • 함주군 추상협농, 가을걷이 및 낱알털기 만전 궐기모임 진행(9.15, 중·평방) • 9.14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진행(9.15, 중방) •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지도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9.28, 중방) • 선교피복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9.29 현지 진행(9.30, 중방)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0.5 모범적 단위들에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10.8, 중방) • 제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10.8, 중방) • 고무산시멘트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10.16, 중방) • 「온포휴양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10.16 현지 진행(10.17, 중방) • 제4차 전국 나노과학기술 발표회 및 제품전시회 10.17~18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최(10.19, 중방) • 북한-유럽연합 경제토론회(10.23~24, 평양) 개최(10.25, 중방) • 전국과학기술발표회(10.23~24),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10.25, 중방) • '내각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10.23, 중통) • 평양도시설계연구소·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평양측량지질설계연구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각각 진행(10.30, 중방) • 「중소형발전소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제3차 전국경락연구 학술 토론회」 각각 진행(10.31, 중방) |

| 시 기 | 내 용 |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10.2~31) 폐막(10.31, 중통) • 김정일 위원장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개최(11.12, 중방) • 유네스코 과학기술도서 전시회 개최 - 인민문화궁전(11.12, 중방) • 전국 토끼기르기 경협토론회-평양 안학중학교(11.12, 중방) • 전국 과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11.14~15) 개최(11.16, 중방) • 은율광산 '벨트컨베어 박토파쇄장' 조업식 진행(11.21, 평방) • FAO 제 34차 총회(11.20)에서 북한 대표단장 연설(11.29, 중방) • 평양건재공장 조업식(11.21) 진행(11.22, 중방) • 함경남도 함주 돼지공장, 개건 조업식 진행(11.27, 중방) • 11.30 북-중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12.1, 조선신보)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지식인대회 폐막(12.1, 중방) • 예성강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12.2, 중방)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12.3 김정일 현지지도 1돌 기념 보고회 진행(12.4, 중방) • 남북,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12.5, 중통) •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12.4-6 서울에서 진행(12.7, 중방) •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과학기술국, 3대혁명소조원들의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진행(12.8, 중방) • 北-中,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체결(12.14, 북경) • 김정숙 탄생 90돌(12.24) 관련 기념행사 개최(12.24, 평방·중방)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12.26, 평방) |

<부록 2>

< 2007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

| 시 기 | 내 용 |
|-----|------------------------------------------------------------------------------------------------------------------------------------------------------------------------------------------------------------------------------------------------------------------------------------|
|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북도내 근로자들, 예성강발전소 건설 등 주력(1.8, 중방) • 연산군민발전소, 발전소 건설에서 혁신(1.10, 평방) • 개성시, 자연 흐름식 물길을 위한 보호막이 공사 진행(1.18, 중방) • 어랑천 1호 발전소 조업(1.26, 중방) • 예성강발전소 건설자들, 발전소 건설 성과(1.28, 중방) |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랑천 2호발전소 공사 건설 성과(2.3, 중방) • 평양시 상수도 개건대상 준공(2.3, 중방) • 평북 염주군 다사제염소 개건 확장공사 진행(2.12, 평방) • 황남 연산군 군인발전소 건설 추진(2.12, 중방) • 전천은덕원, 건설 개원(2.19, 중방) • 함남 함주군 추상발전소 건설 추진(2.21, 중방)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시, 3.9 돼지공장 착공(3.10, 평방) • 어랑천 발전소 2단계 조합수조 굴착공사 성과(3.14, 평방) • 함경남도 장진군, 양목장 새로 건설(3.31, 중방)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호구역 남강다리 개통(4.14, 중방) • 홍주청년3호발전소 건설 착공(4.14, 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물 증산투쟁 성과(4.21, 중방) • 나선식료공장 조업(4.26, 중방) • 함남 함흥시 금산지구 살림집 415동 새로 건설(4.30, 평방)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수발전소 준공(5.9, 평방) • 나선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 버섯 생산 시작(5.12, 평방)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의 잠진-대보 지선공사 착공(5.15, 중방) • 나선시, 현대적 산원 건설(5.19, 중방) • 함남 신포시 해수욕장 건설 진행(5.21, 중방) • 용약산 샘물공장 조업(5.31, 노동신문)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고원군 대규모 저수지 건설(6.4, 중방) • 함경북도 회령시, 살림집 건설에서 성과(6.13, 중방) • 삼지연장공장 새로 건설(6.13, 중방) • 함남 덕성군, 계단식으로 80여개 중소형발전소 건설(6.25, 중방) |

| 시 기 | 내 용 |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계시, 현대적인 돼지공장 신축(7.1, 평방) • 개성시 영정협동농장, 40여세대의 농촌살림집 건설(7.2, 중방) • 함경북도 도건설지휘부, 회령시에 1천세대의 살림집 건설 추진(7.2, 중방) • 강계시, 새로운 살림집 건설 주력(7.4, 중방) • 용악산에 유원지 건설(7.9, 중방) • 평북 간석지건설관리국, 대계도 간석지 2호 4호 제방 완공(7.16, 중방) • 함남 함주군 농민휴양소 등 휴양소 9개소 건설(7.17, 중통) • 어랑천발전소 건설참가자들, 건설성과(7.30, 중방) • 낙랑대성피복공장 조업(7.30, 조선신보) • 천리마제강, 대규모 연속 조괴공정 건설 조업(7.31, 중방)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천버섯공장, 신축 완공(8.4, 평방)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연재처리장 기본공사 완공(8.5, 중방) •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연제건설 성과(8.8, 중방) • 자강도 만포시 연하발전소 마감단계에서 건설 진행(8.8, 중방) • 구룡령에 강계목장 건설(8.11, 중방) • 황해북도 서흥군, 8.16 새 다리 완공(8.17, 중방) • 각지에서 민속공원, 놀이장 등 건설 진행(8.29, 중통) • 홍남비료(련), 비료생산공정 개진, 조업(8.30, 조선신보)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북 연탄군, 자연흐름식 수도화공사 완공(9.17, 평방) • 자강도 강계종합목장 건설 추진(9.17, 중방) • 청단군, 살림집 새로 건설(9.19, 중방) • 연안군에 기와생산공장 건설(9.20, 중방) • 백두산 선군 1·2호 발전소 건설 추진(9.20, 평방) • 모란봉공원 개진(9.20, 조선신보) • 김정일, 삼지연지구 및 북청-혜산 도로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9.30, 중방) • 증산군, 석일저수지 건설(9.30, 중방)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천군 달천리 종달온천지구에 50동의 현대적 살림집 건설(10.15, 평방) • 평성-평원 신설도로 포장공사 종료(10.15, 평방) • 신천군, 살림집 건설 성과(10.17, 중앙TV) • 3월5일청년광산내 선광장과 대형파쇄장 준공식(10.24, 중방) • 사리원돼지공장 및 사리원닭공장 개진 조업(10.30, 중방) • 김책시, 입체다리 건설(10.30, 평방) |

| 시 기 | 내 용 |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리원돼지공장, 현대적으로 건설 조업(11.1, 중방) • 함경북도, 각지에 30여개 마을을 조성하고 살림집 건설(11.1, 중방) • 황북도 미루별 토지정리사업 시작(11.2, 평방) • 평양시, 대동강 강안도로노반정리 2단계 공사(평양대극장-양각다리 1,660여m) 진행(11.6, 중방) • 사리원시, 민속거리 준공(11.6, 중방) • 황해남도, 수백 동의 농촌살림집 건설(11.9, 평방) • 함북 경성군, 어랑발전소 건설성과(11.9, 중방) • 평양시, 옥류관·모란각 등 주민편의시설 480개소 대규모 리모델링(11.12, 조선신보) • 평양시 강동군, 큰물피해로 부서진 새 다리 건설(11.15, 평방) • 칠보산 황진은천지구에 주택 70여동 건설(11.17, 중방) • 김정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원산청년발전소 언제건설장 시찰(11.18, 중통) • 평양시 낙랑구역 오봉산 공원 새로 조성(11.19, 조선신보) • 통천군, 수십 동의 농촌살림집 건설 성과(11.19, 평방) • 은율광산 대형 장거리 벨트콘베아 박토파쇄장 건설, 조업(11.20, 중방) • 평양건재공장, 조업(11.21, 중통) • 자강도 자성군, 귀인지구에 대용량 수력발전소 건설(11.26, 평방) • 함남도 함주 돼지공장 개건, 조업(11.29, 중방)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새 살림집 건설 성과(12.6, 중방) • 평양방직공장 염색공정 개건(12.12, 중방) • 평안남도, 올해 1만세대 이상의 현대적 살림집 완공(12.13, 평방) • 평양시 강동군 읍지구, 농촌문화주택 완공(12.16, 평방) • 2007년 중요 건설대상 완공 성과(12.26, 중방) |

< 부록 3 >

2007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 1.1(월)

-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로 공동사설 발표(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 예성강 발전소 건설장에 건설기계들 전달(중방)

■ 1.2(화)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0만산대발파 성공적으로 진행(노동신문)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력생산 성과 소개(중방)

■ 1.3(수)

- 인민보안성 산하 김대성 소속부대 군인들, 봉수농장 지원(중방)
- 내각 전력공업상에 박남철 前 전기석탄공업성 부상을 임명(중통)
- 북창화력발전소 · 청진화력발전소, 전력증산 주력(평방)
- 평양철도국, 화물 수송 주력(중방)

■ 1.4(목)

- 김책공대, 김정일 현지도 1돌 보고회 진행(중방)
- 「경사스런 올해를 자랑찬 승리와 위훈으로 빛내이자」 (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판유리 생산 혁신(중방)
- 양강도 임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 겨울철 통나무 생산 혁신(중방)

※ 연초 농업독려 현황(1.1~1.11, 보도종합)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며 연초부터 농사준비 및 농촌지원을 독려하고 있음.

■ 1.5(금)

- 황남 농촌경리위 위원장 등, 신년 공동사설 지지(중방)
-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탄증산 투쟁에 박차(중방)
-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거름생산전투(노동신문)

■ 1.6(토)

- 미루별 물길공사, 힘있게 추진(노동)
- 황주군 외상협동농장, 농사차비에 역량 집중(민주)
- 평양시, 1.5 협동농장 등에 지원사업 전개(중방)

■ 1.7(일)

- 비단공업관리국 등 각지 경공업 공장, 인민소비품 생산성과 소개(중방)
- 각지 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주력(중방)
- 자강도 강계시 등, 거름생산 성과(중방)

■ 1.8(월)

- 강원도내 근로자들, 농촌 지원 주력(중방)
- 황해북도내 근로자들, 예성강 발전소 건설 주력(중방)
- 광포오리공장, 오리 사양관리에서 성과 달성(중방)
- 강계기초식품공장, 생산 정상화 주력(평방)
- 함경북도 인민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주력(평방)
- 원산철도차량공장, 차량생산 혁신(평방)

■ 1.9(화)

- 경공업성, 인민소비품 생산 주력(중방)
- 청진시, 농업부문 등 지원(중방)
- 자강도 중소발전소들, 전력 생산에 혁신(중방)
- 원산유리병 공장, 유리병과 유리그릇 생산 주력(중방)
- 개성시 일꾼들, 예성강 발전소 건설 지원(중방)

■ 1.10(수)

- 황해북도·함경북도, 공동시설 관철 군중대회 진행(중방)
- 2.8직동청년탄광, 새해 석탄생산 혁신(중방)

■ 1.11(목)

- 황해남도, 하루에 20여만 톤의 분토생산(민주)

- 청진강재공장, 어량천발전소 2단계 건설장에 철강재 공급(중방)
- 부령합금철공장, 합금철 생산 혁신(평방)
- 연안 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주력(평방)
- 상원 세멘트연합기업소, 세멘트 생산 주력(평방)

■ 1.12(금)

- 허천강발전소, 물원천에 의한 전력생산 효과적 이용(중방)
- 양덕개목생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혁신(중방)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등, 공동시설 과업관철 궤기모임 진행(중방)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비료 생산 주력(평방)

■ 1.13(토)

- 평양 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공동시설 관철을 위한 종업원 궤기모임 진행(중방)
- 강원도 임업관리국 산하 각지 임산사업소, 겨울철 통나무 생산 혁신(중방)
- 은율광산, 쇠돌 생산성과 및 용양광산, 마그네사이트 생산 주력(평방)

■ 1.14(일)

- 순천화력발전소, 전력 증산 성과(중방)
- 송원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혁신(중방)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탄광들, 석탄 생산 성과(중방)

■ 1.15(월)

-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노동)
- 원산직조공장, 새로운 열처리방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 성과(중방)
- 광포오리공장, 고기 생산 주력(평방)
-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탄광설비 생산 주력(평방)

■ 1.16(화)

- 황북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1.15 사회주의 경쟁 전개 호소를 위한 농업 근로자들의 모임 개최(중방)

- 문천금강제련소,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성과 달성(평방)
- 개천 철도국 일꾼들, 수송 조직과 지휘 보장(평방)
- 청진강제공장, 어랑천발전소 2단계 건설장에 철강재 공급(평방)

■ 1.17(수)

- 곡산군내 일꾼들, 새해 농사차비 주력(중방)

■ 1.18(목)

- 개성시, 자연 흐름식 물길을 위한 보호막이 공사 진행(중방)

■ 1.19(금)

- 원산철도차량공장, 1.18 김일성 현지도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기술개선 및 설비현대화 성과(평방)

■ 1.20(토)

- 김정일 위원장, 희천 시내 공장들 및 태천4호 발전소 현지도(중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생산공정 개선사업 주력(중방)
- 사리원시 일꾼들, 예성강발전소 건설 물길 공사 성과(평방)

■ 1.21(일)

- 자강도 근로자들, 농촌지원사업 전개(평방)
- 함경남도임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들, 겨울철 통나무 생산 성과(평방)

■ 1.22(월)

- 김정일 위원장, 태천4호발전소 현지도(중방)
- 숙천군 농업경영위 기사장 등, 새0해 농사차비 주력 표명(중방)
- 임업성, 겨울철 통나무 생산성과 소개(중방)

■ 1.23(화)

- 농업과학원, 과학기술적 방법에 의한 농업발전 추진(중방)
-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공동시설 관철에 주력(평방)

- 양강도 임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주력(평방)
-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자들, 언제 및 물길굴 공사 주력(평방)

■ 1.24(수)

- 함경북도 갯목생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주력(중방)a
- 예성강발전소건설 청년돌격대원들, 1호 발전소 하류옹벽공사 성과(평방)

■ 1.25(목)

- 북청 신발공장, 신발 생산 혁신(중방)
- 흥남 대흥수산기업소, 1.24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평양시 농촌경리위, 과학 농사를 잘하기 위한 경제 조직사업 주력(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물생산에서 혁신적 성과(평방)
- 자강도내 경공업공장등,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평방)

■ 1.26(금)

- 원산목장, 가축먹이 생산 주력(중방)
- 두단오리공장, 오리고기 생산에서 성과 소개(중방)
- 동신갯목생산사업소, 동발나무 생산 주력(중방)
- 어랑천 1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중방)
- 생장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계획 초과 달성(평방)

■ 1.26(금)

- 어랑천 1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 및 2단계 공사 진입(중·평방)
- 강원도 원산목장, 풀판조성 주력(중방)

■ 1.27(토)

- 만포종이공장, 종이 생산 성과(중방)
- 청남구 노동자·사무원들, 농촌지원사업 성과(중방)

■ 1.28(일)

- 벽성군 장협협동농장, 흙보산비료 생산 정상화(민주)

- 함남 고원군, 농촌 지원사업 성과(중방)
- 미루별 물길공사 건설자들, 공사대상 수행 성과 (평방)

■ 1.29(월)

- 천마식료공장, 식료품 생산 정상화 추진(중방)
- 염주군 인민위 부장등, 소금밭 건설 반향(중방)
- 곡산군 농기계작업소, 농기계 수리 혁신(중방)

■ 1.30(화)

- 자강도 낭림군 노동자들, 농촌에 거름지원 사업 성과(중방)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청남탄광, 1월 생산계획 초과 완수(중방)

■ 1.31(수)

- 평안북도내 농촌들, 버섯기르기 주력(민주)
- 평안남도 임업관리국, 1월 통나무 생산계획 완수(중방)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1월 인민경제계획 완수(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물 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 달성(평방)

■ 2.1(목)

- 사리원 피복공장, 1월 생산 초과 달성(중방)
- 석탄공업성 산하 탄광들, 1월 생산계획 초과 달성(평방)

■ 2.2(금)

- 자강도 성간군, 생물활성 퇴비 생산 주력(중방)
- 박천견직공장, 천 생산에 역량 집중(중방)

■ 2.3(토)

- 평양시 상수도 개건대상 준공식 개최(중방)
- 광포오리공장, 능력확장공사 추진(중방)
- 신의주 신발부속품공장, 생산 주력(중방)
- 희천정밀기계공장, 운전기재 부속품 생산 성과(중방)

- 함경남도 탐사관리국 일꾼들, 지질탐사사업 성과 달성(중방)
- 황남 배천군 등, 농사차비에 주력(중방)
- 황남 수산관리국 부포바닷가 양식사업소, 다시마 생산 시작(평방)

■ 2.4(일)

- 희천정밀기계공장, 영농물자 보장 주력(중방)
- 개성 송도피복공장, 1월 생산 계획 완수(평방)
- 박천견직공장, 담요생산 성과(평방)
- 대홍단군, 감자농사 준비 주력(평방)

■ 2.5(월)

- 사리원 트랙또르 부속품 공장, 농촌에 트랙또르부속품 공급 주력(중방)
- 평안북도, 농촌 지원사업 성과(중방)
- 낭림 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사업 성과(평방)

■ 2.6(화)

- 함흥기초식품공장, 생산 성과 달성(중방)
- 강동탄광, 석탄증산에서 성과 달성(중방)
- 장산광장, 내화벽돌 생산 성과 달성(평방)

■ 2.7(수)

- 희천정밀기계공장, 운전기재 부속품 생산 성과(중방)
- 오봉탄광·용운탄광, 석탄 생산 혁신(중방)
- 김정일 위원장, 청진광산금속대학 현지 지도(중방)

■ 2.8(목)

- 김정일위원장, 함경북도 경제부문 현지지도(중·평방)
 - 청진기초식품공장, 군민발전소, 어량천1호발전소, 장연호양어장 등
- 평안남도내 도급기관 일꾼 등, 탄광 지원 주력(평방)

■ 2.9(금)

- 함주군, 수산발전소 건설 주력(평방)
- 영대탄광, 석탄생산 혁신(평방)

■ 2.10(토)

- 황해북도, 파철 수집 사업 강화(중방)
- 동암광산, 광물 생산 성과(중방)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비날론연구소 소장 등, 주체적 비날론 공업 발전 추진 강조(중방)

■ 2.11(일)

- 강원도 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들, 물고기 잡이와 바다나물 생산 주력(중방)
- 청진장 전기공장, 변압기 및 전동기 설비 생산 성과(중방)

■ 2.12(월)

- 황해남도 연산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중방)
- 염주군, 다사제염소 개건 확장공사 추진(평방)

■ 2.13(화)

- 자강도 중소발전관리국, 전력 증산 주력(평방)
- 명간개목생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혁신(평방)

■ 2.14(수)

-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과학자들, 전력증산 연구 주력(중방)
- 강계목재가공공장, 가구생산 주력(중방)
- 청진피복공장, 인민소비품 생산 주력(중방)

■ 2.18(일)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부직장등, 설 명절 즈음 전력증산 결의 다짐(중방)

■ 2.19(월)

- 러시아, 2.6~9, 북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진행(평방)

■ 2.21(수)

- 평안북도 임업관리국, 겨울철 통나무 생산 주력(평방)
- 개성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 해주기초식품공장, 기초식품 생산 성과(중방)
- 신흥양어장, 물고기 기르기 준비사업 성과(중방)
- 시중광산, 광물 생산 정상화(평방)
- 함주군, 추상발전소 건설 추진(중방)

■ 2.22(목)

- 경원군, 거름생산으로 지력 보강 성과 달성(중방)
- 강계목재가공공장, 도색 공정 꾸리기 사업 성과(중방)
- 송원피복공장, 옷생산 성과(평방)

■ 2.23(금)

- 맹산군, 기초식품생산기지 개건 공사 추진(중방)
- 청진기초식품공장, 기초식품 생산 주력(중방)

■ 2.24(토)

- 황북 미루벌 물길공사장, 6만산 발파공사 진행(평방)
- 황해남도 농기계 작업소들, 농기계 수리 정비 성과 달성(중방)
- 신의주 법랑철기공장 지배인 등, 법랑그릇 생산 성과 달성(평방)
- 용천군 양정사업소, 양곡 가공설비 기술 개건 추진(중방)

※ 1~2월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지도 동향

- 김정일 위원장은 금년도 1~2월중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공장·발전소·양어장 등 8개 산업시설에 현지지도 실시

■ 2.25(일)

- 신천군 새날농장, 2.25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2.26(월)

- 함남 부전군 협동농장 경영위, 과학기술적 감자 농사에 역량 집중(중방)

■ 2.27(화)

- 러시아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청장: 폴리코프스키 북·러경제공동위원장) 공보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6년 만에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3.22~23 기간 중 모스크바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

■ 2.28(수)

- 채취공업성 일꾼등, 광물 생산 등 성과(중방)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부소장등, 농사 채비 진행 소개(중방)

※ 봄철, 나무심기 독려 동향

- 북한은 3.2 「식수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봄철 식수월간」(3~4월)을 맞아 각지에서 나무심기 꺾기모임 개최, 기념식수 등 나무심기를 독려하고 있음.

■ 3.1(목)

- 평안북도 협동농장들, 봄밀·보리심기 한창(노동신문)
- 사리원 주택건설사업소등, 사리원 닭공장 개건공사에 주력(평방)

■ 3.2(금)

- 대동강 발전소, 2월 전력생산계획 초과 완수(중방)
- 남포시, 봄철 식수에 주력(중방)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 조성사업에 주력(중방)
- 평안남도 근로자들, 식수절 맞아 꺾기모임 진행(중방)

■ 3.3(토)

- 조양탄광, 석탄생산에서 혁신(중방)
- 수풍발전소, 전력생산 성과 확대(중방)

■ 3.4(일)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화학제품 생산 성과(중방)
-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탄증산 투쟁 성과(중방)

■ 3.5(월)

- 강원도 수산관리국, 수산물 생산 주력(중방)
- 김책개목생산사업소, 동발나무 생산에 주력(중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광물 생산 성과(평방)
- 김책공업종합대학, 국내의 지형학적 및 기상기후 조건에 맞는 새로운 풍력 발전기 개발(조선신보)

■ 3.6(화)

- 각지 당원들, 식수절 계기 봄철 나무심기 주력(국제)
- 개성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산림과장 등, 봄철 나무심기 주력 표명(중방)

■ 3.7(수)

- 2006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313개의 공장, 기업소들에 선군 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중·평방)
- 함경북도 무산군 근로자들, 홍남청년발전소 건설 지원(중방)
- 대안유리섬유공장, 생산 공정 기술적 개조 성과(중방)

■ 3.9(금)

- 강원도, 봄철 나무심기 진행(중방)
- 청진화력발전소, 전력 생산 성과(평방)

■ 3.10(토)

- 강원도, 봄철 나무심기 진행(중방)

■ 3.11(일)

- 광산 연결농기계공장, 모내는 기계 생산에 주력(중방)
- 자강도 고평군, 봄철 식수에 주력(중방)

■ 3.12(월)

- 평안남도내 당원들과 근로자 등, 봄철 나무심기에 주력(중방)
- 평안북도 염주군, 씨뿌리기 준비 성과(중방)

■ 3.13(화)

- 평안남도내 당원들과 근로자 등, 봄철 나무심기에 주력(중방)

■ 3.14(수)

- 김정일 위원장, 평북 박천군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중방)

■ 3.15(목)

- 함경남도 광명성제염소, 올해 첫 소금생산 시작(중방)

■ 3.16(금)

- 강원도 원산시등, 봄철 나무심기 주력(중방)

■ 3.17(토)

- 함남 은율광산, 쇧돌 생산투쟁 성과(중방)

■ 3.18(일)

- 청진기초식품공장, 기초식품 생산 주력(중방)

■ 3.19(월)

- 황남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혁신(중방)
- 황북 사리원시 협동농장, 벼냉상모판 만들기 주력(중방)
- 황북 장풍군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부부장, 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 지적(중방)

■ 3.20(화)

- 제4차 북·러경제공동위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이 3.20 평양 출발(중방)

■ 3.21(수)

- 황해북도 황주군, 콩농사 준비 한창(중방)
- 3.20~21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평양에서 개최(노동신문)

■ 3.22(목)

- 南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참관단」 평양 도착(평방)

■ 3.24(토)

- 황해남도의 협동벌에서 냉상모판 씨뿌리기 시작(중방)

■ 3.27(화)

- 양어지도국, 폐기공장과 양어장들에 대하여 봄철 양어장 관리를 봄철 국토 관리 총동원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으로 제기하고 독려(중방)

■ 4.1(일)

- 국가과학원 컴퓨터과학연구소, 전기절약을 위한 공업용 3상카드식 적산 전력계 연구·개발(조선신보)

■ 4.2(월)

- 황해북도 농촌들, 벼냉상모판 씨뿌리기 진행(중방)

■ 4.4(수)

- 황해북도 서흥호지구관개관리소에서 농사에 쓸 물보장 대책 마련에 주력(중방)
- 황해북도 내 협동농장들이 감자심기에 주력(중방)

■ 4.5(목)

- 자강도 중소형발전소, 전력생산에 주력(중방)

■ 4.6(금)

-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어랑천 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 주력(중방)

■ 4.9(월)

- 황해북도 미루벌 물길공사장, 10만산 대발파가 진행(중방)

■ 4.10(화)

- 황북 은파군, 봄철나무심기 진행(중방)

■ 4.12(목)

- 북-베트남, 2007~2008년 규격화 계량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대외 조인(중방)

■ 4.13(금)

- 황남 재령군 김제원협동농장, 김일성 현지도도 60돌기념 보고회 개최(중방)

■ 4.14(토)

- 4.13 홍주 청년3호발전소 건설 착공식 개최(중방)

■ 4.18(수)

- 신임총리 김영일을 비롯한 내각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중통)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평양개최(4.18~22)

■ 4.19(목)

- 개성기계공장, 농기계 부속품 생산 혁신(중방)

■ 4.22(일)

- 각지 과수농장들, 봄철 과수원 관리 성과(중방)

■ 4.23(월)

- 황해북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맞아 황해북도 봄철 국토관리사업 마감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평방)
- 함흥철도국, 철길 강도 제고 노력(평·중방)

■ 4.24(화)

- 자강도 만포시, 연하발전소 연내 건설 완공을 목표로 발전소 건설에 박차(중방)

■ 4.28(토)

-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설비 현대화에 주력(중방)

■ 4.29(일)

- 양강도 대흥단군 농업경영위 위원장 등, 감자심기 시작 선전(중방)

■ 5.3(목)

- 함남 단천제염소, 올해 첫 소금 생산 시작(중방)

■ 5.6(일)

- 황해남도 내 농촌들, 밀보리 파종면적 확대(중방)

■ 5.7(월)

- 사리원 돼지공장 건설 마감단계에서 박차(평방)
- 성천강전기공장, 공장 현대화에 주력(평방)

■ 5.8(화)

- 함남 함흥시 등, 콩농사 일반화 사업 전개(중방)
- 제22차 중앙과학기술축전(5.3~5.7) 폐막식이 5.7 진행 - 최태복, 노두철, 변영립, 박영신 및 축전참가 과학자·기술자 등이 참석(평방)
- 5.7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중방)

■ 5.10(목)

- 삼수발전소 준공식이 5.9현재에서 진행 - 김기남, 박범기 등 참석(중방)
- 「평양수예연구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중방)

■ 5.12(토)

- 나선시, 신설한 버섯공장에서 생산 시작(평방)

■ 5.13(일)

- 평남 평원군 원화협동농장(5.10), 강서군 청산협동농장(5.12)에서 금년도 모내기 시작(중방)

■ 5.15(화)

- 개천-태성호 물길 잠진-대보 지선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착공식 진행(중방)

■ 5.16(수)

- 황해남도 내 시군들, 양어에 주력(중방)

■ 5.17(목)

- 북, 대동강 강안 개건보수 2단계 공사 시작(국제)

■ 5.20(일)

- 함흥시,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완료(중방)

■ 5.23(수)

- 광포오리공장, 오리고기 생산 주력(중방)
- 5.22 평양에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및 의정서 체결(중통)

■ 5.25(금)

-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돼지공장 건설 마감단계(평방)

■ 5.26(토)

- 황해남도 내 노동자·사무원들, 모내기 지원사업 주력(중방)
- 평안북도 내 농촌들, 콩심기 마감단계 (중방)

■ 5.27(일)

- 자강도 협동농장들, 모내기 주력(중방)
- 낙산만과 대동산지구 양식장들, 바닷가 양식사업 성과(평방)

■ 5.28(월)

- 평안북도 용천군, 모내기 진행(중방)
- 황해남도 농업근로자들, 모내기 성과(중방)

■ 5.30(수)

- 영대탄광, 석탄생산 정상화(중방)

■ 5.31(목)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등, 벼 모내기 결속(중방)
- 단천지구광업지도국 산하 광산들, 금속생산 성과(중방)
- 용악산 샘플공장 조업식 진행(노동신문)

■ 6.1(금)

- 평양철도국 수송근로자들, 농촌 영농물자 수송 주력(평방)

■ 6.2(토)

-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강계시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 박도춘, 김기남 동행(중방)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농촌 지원사업 주력(중방)

■ 6.6(수)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시행규정」 채택에 대한 내각 결정 발표(민주조선)

■ 6.7(목)

- 북한 각지 농촌들, 콩심기 마감단계 추진(중방)

■ 6.8(금)

-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경제 여러부문 사업 -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등 현지지도(중방)

■ 6.12(화)

- 대홍단군과 삼지연군에 진출한 수백명의 체대군인들, 6.9 혜산농림대학 졸업(평방)

■ 6.14(목)

- 황해남도 신원군, 계남목장 개건·확장 공사 본격적으로 진행(평방)

■ 6.18(월)

- 자강도 등 각지에서 봄 누에치기가 한창(중방)

■ 6.20(수)

- 국가과학원 발명국, 올해 상반기에 500여건의 발명, 1,000여건의 새 기술 및 창의고안들이 심의 등록된 것으로 발표(조선신보)
- 정부 경제대표단, 아프리카 향발(평방)

■ 6.26(화)

-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 고기 생산 증가 동향(중방)
- 석탄공업성, 정마철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장마철에도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강화(중방)
- 회령시, 강냉이밭 김매기 주력(중방)

■ 6.28(목)

- 청진기초식품공장, 생산공정의 무인화·컴퓨터화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고품질의 기초식품인 「토장」을 생산하는 개건·현대화 성과 소개(조선신보)

■ 6.30(토)

- 황해남·북도 농촌경리위 장마시기 큰물막이 피해 대책 마련 강화(중방)

■ 7.1(일)

- 자강도 강계시, 여러 동의 생산건물과 보조건물들로 구성된 현대적인 돼지 공장 신축(평방)

■ 7.11(수)

- 자강도 고치생산사업소, 봄누에고치따기 생산성과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노동)

■ 7.16(월)

- 이집트 오라스콧사,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현대화 및 운영을 위한 합병 계약서 체결(중방)

■ 7.23(월)

- 7.23~24, 「국제감자과학토론회」 평양 개최(중·평방)

■ 8.2(목)

- 양강도 대흥단군내 협동농장들, 감자농사에 주력(중방)

※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개최 동향

- 제 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8~20, 베이징) 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과 관련된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가 관문점 「평화의 집」에서 8.7~8 기간 중 개최

※ 김정일 위원장, 함경북도 금속·기계공업부문 공장 현지지도

-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8.5, 중방), 김책제철연합기업소(8.7, 중방), 성진제강연합기업소(8.8, 중방) 등

※ 김정일 위원장, 함경남도 경제부문 현지지도

- 2.8비날론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8.11), 흥남비료연합기업소(8.12), 함흥목제품공장(8.13), 함흥영예군수인지일용품공장(8.14),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제련소(8.14) 등

※ 북한 경제대표단 이란·시리아 방문 동향

- 북한 경제대표단(단장: 무역상 임경만)이 8.4~14 기간 중 시리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친선관계 강화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협력확대 방안 협의

■ 8.25(토)

- 북한 중앙통계국은 8.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피해 상황을 8.25일 공식 발표(중통)
 - 사망·실종 600여명, 이재민 90만여 명, 주택손실 24만여 가구, 농경지 20여만 정보 훼손, 철길 100개소, 도로 2,000여개 소, 8,000여 채의 공공 건물 훼손, 300여 개의 갭과 채탄장, 수십만톤의 석탄 유실 등

※ 북한지역 집중호우 현황

- 8.17~18에 걸쳐 평양 580mm를 비롯, 평남북·강원·함남 등 북한 중부 지역에 평균 700mm이상의 비가 내렸음.

■ 8.5(일)

- 김정일,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방)

■ 8.8(수)

- 자강도 만포시, 연하발전소 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중방)

■ 8.11(토)

- 북 방송, 지난 20년간 고속도로 등 도로망 완비 성과 선전(중방)

■ 8.17(금)

- 황해북도 서흥군, 8.16 새 다리 완공 준공식 진행(중방)

■ 8.21(화)

- 구성담공장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개최(중방)

■ 8.23(목)

- 공청창립 80돌 기념 전국 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막(노동)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2.8비닐론연합기업소 과업관철 종업원 궐기모임 진행(노동)

■ 8.24(금)

-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개막(노동)
- 김일성의 개성피복공장 현지지도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평방)

■ 8.27(월)

- 수해 피해 복구사업 동원으로 「아리랑 공연」 일시 중단(중방)

■ 8.28(화)

- 북한은 이번 수해를 '과거 10여년간 겪었던 재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유례 없는 타격'이라고 보도하면서,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자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보도(조선신보, 중통, 중·평방)

■ 9.1(토)

- 태국 「록슬리 태평양 주식회사」 대표단(단장: '장자이 한찬라쉬' 부총사장)이 9.1~9.4 간 방북(평·중방)
- 양강도 대홍단군, 밀·보리 가을걷이 시작(중방)

※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경제부문 현지지도

- 9.1일 자강도 만포시내 공장·기업소(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공장)및
9.2일 성간군·전천군내 경제부문 여러단위(2월제강종합기업소, 전천착
암기공장, 전천상업관리소, 전천공업품상점 등 현지지도(중방)

■ 9.4(화)

- 북·중, 9.4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중방)

■ 9.6(목)

- 「선봉화력발전소」 재가동 동향 보도(중방)
- 「2.17과학자·기술자 돌격대」 대원들의 과학혁명, 기술혁명 성과 보도(중방)

■ 9.7(금)

- 김정일의 저서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발표 60돌과
김정일의 장산식목 50돌을 즈음하여 산림·식물·토지보호부문 「전국
과학기술토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조선신보)

■ 9.13(목)

- 양강도 대흥단군, 감자수확 시작(중방)

■ 9.15(토)

- 류샤오밍 주북 중 대사 나진·선봉 특구 방문
 - 류샤오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9.15~16간 함경북도 나선시를 방문,
나진항 및 나진신흥 연초회사·청진금속합작회사 등 산업현장 시찰

■ 9.17(월)

- 자강도 강계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강계종합목장 건설 추진(중방)
- 낭림군, 감자 수확 시작(중방)

■ 9.20(목)

-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백두산선군청년 1호 발전소 건설 추진 및 2호발전소 건설에 착수(평방)
-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와 황해북도 청년돌격대원, 예성강 「청년1호발전소」 건설마감공사 추진(평방)
- 북한 국가과학원 대표단(단장: 이성욱 부원장), 9.20~22 기간 중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동북아 첨단기술 박람회」 참가(중방)

■ 9.23(일)

- 방북중인 시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랑공연」 개시상황을 요약 중계하면서 동 공연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 (중앙TV)

■ 9.24(월)

- 9.18~21 기간 중 「태풍 12호(위파)」에 의한 폭우로 피해 발생(중통)
 - 주택 14,000 세대, 공공건물 8,000여 동, 생산건물 300여 동, 농경지 109,000여 정보, 철도 수십 개소, 다리·도로 90여 개소 피해 발생
- 9.24~10.3 발명총국 대표단 4명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총회」에 참석

■ 9.25(화)

-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축산기지 시찰(중방)

■ 9.27(목)

- 희천강철공장(9.24, 중방),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9.27, 중방), 청진강재공장(9.2, 중방) 등 철강재 생산에 성과 보도

■ 10.1(월)

- 강원도 돌격대원 「미루벌 물길공사」의 기초구조물 공사와 물길굴 콘크리트치기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중앙 TV)

■ 10.2(화)

- 각지 과학기술자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발전에 이바지할 많은 연구 성과들을 산출하여 각 부문 공장기업소에 도입되어 성과 달성(평방)

■ 10.5(금)

- 10.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73호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중방)

■ 10.6(토)

- 몽골 정부경제대표단(단장 : ‘야 쏘드바띠르’ 공업 및 무역성 부상)이 방북(10.6~11)하여 김영남 면담
 - 북-몽골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회의위원회 제7차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 논의

■ 10.8(월)

- 10.8~11, 3대혁명 전시관에서 10여개국 1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중방)

※ 최근 북·중 경제교류협력 동향

- 1990년대 이후 북한-중국 간 경제교류협력 관계는 무역·투자·지원·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점차 긴밀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의 對北 경제적 영향도 커지고 있는 추세

■ 10.9(화)

- 양강도 농촌들, 감자수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중방)
- 조총련 중앙상임위, 일본의 제재조치 재연장 관련 규탄성명 발표(조선신보)

■ 10.15(월)

-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을 선포하면서,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 참여를 촉구

■ 10.16(화)

-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농 득 마잉',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방북 (10.16~18)
 - 김정일 위원장 및 주요 당·정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인 친선 관계 발전의 계기 마련

■ 10.23(화)

- 김영일 총리 참석리에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 경제건설 과업을 제시하고 3/4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토의(중통)
- 10.23~24, 국가과학원 창립 55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방)
 - 개막식 참석자 : 변영립(국가과학원 원장), 과학원 관계장, 전국 과학자·기술자, 교원·연구사 등

■ 10.24(수)

- 10.23~24 평양에서 「북한·유럽연합 경제토론회(DPRK-EU Economic Seminar)」 개최
 - 농업·경공업·IT 등 개별 산업 및 금융분야 정보 교환, 북·EU 경제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중통)

■ 10.29(월)

- 6자회담 참가국들, 10.29~30 판문점에서 제3차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개최
 - 북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공되는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방안 협의

■ 10.30(화)

- 노동신문, 「자력갱생의 가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자」 題下の 논설을 통해 “자력갱생은 21세기 경제건설에서도 노동당의 변함없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21세기 자력갱생」의 원칙을 제시

■ 11.2(금)

- 미루별 황해북도 토지정리 돌격대원들, 토지정리사업 시작(평방)
- 최근 내각에서 저작권자 활동보장과 권리보호 및 저작물 이용시 엄격한 제도, 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정 채택을 발표했다고 보도(민주조선)

■ 11.3(토)

- 흑룡탄광, 11.2 김정일 현지도 및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통)

■ 11.4(일)

- 김책시,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중방)
- 장진강발전소 등, 10월 전력생산계획 초과 달성(중방)

■ 11.6(화)

- 11.6 사리원시 민속거리 준공식 진행(중방)
 - 사리원시는 2007년 5월 외국인 관광개방 지역으로 지정

■ 11.8(목)

- 양강도 대흥단 감자가공공장, 감자전분 생산 혁신 소개(중방)

■ 11.12(월)

- 평양시 건물·도로 등 개선보수 사업 진행(조선신보)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평양 시내의 480개소에서 개선보수를 비롯한 건설 사업 진행 및 도시미관 개선

■ 11.13(화)

- 노동신문 사설 <공동시설 과업 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 하자>을 통하여 경제회복·정세개선 등 성과를 제시(중방)

■ 11.14(수)

- 자강도·평안남도 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 성과 보도(중방)

■ 11.16(금)

- 11.14~15 기간 중 「전국 과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중방)
 - 과수조성사업의 실천과정에서 얻은 150여건의 성과자료와 경험들을 소개

■ 11.19(월)

- 광포오리공장, 고기 생산성과 소개(중방)

■ 11.20(화)

- 노동신문 사설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에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중통)

■ 11.21(수)

- 은율광산 「벨트컨베어 박토파쇄장」 조업식 진행(평방)
- 「평양건재공장」 조업식 진행(중방)

■ 11.24(토)

- 평양 가금설비공장, 자동화된 사료공급설비(평사식 자동먹이흐름선) 도입(조선신보)

■ 11.27(화)

- 평양방직기계공장 「자동직조기계」 생산(조선신보)
- 평북 운산군, 온천관광객 대상 민박용도 주택 건설(평방)
- 함경남도 함주 돼지공장 개건 조업식 진행(중방)

■ 11.30(금)

- 「4.15기술혁신돌격대」 활동성과 보도(중방)
-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탄생산 성과(평방)
- 국가과학원 지리학연구소 과학자들, 수력자원 증산 주력(중방)

■ 12.1(토)

- 자강도 기초식품공장들, 기초식품 생산 성과(중방)

■ 12.2(일)

- 고무산시멘트공장, 시멘트 생산 성과(중방)

■ 12.3(월)

-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대상설비 생산 성과(평방)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탄생산 성과(중방)

■ 12.4(화)

- 회령시 지방산업공장, 인민소비품 생산 주력(중방)
- 양강도 임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들,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주력(중방)

■ 12.5(수)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연간계획 완료(평방)
- 남북,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중통)

■ 12.6(목)

- 단천광산기계공장 부기사장등, 채취설비 부속품 생산에 주력 표명(중방)
- 강계청년발전소 3호발전소, 설비 정상화 보장(중방)

■ 12.7(금)

-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 1차회의, 12.4~6 서울에서 진행(중방)

■ 12.8(토)

- 자강도내 공장기업소들, 연말전투 결속 주력(중방)

■ 12.9(일)

- 황해북도 미루벌 토지정리돌격대원들, 미루벌 토지정리 성과(중방)
- 덕성탄광, 연간 계획 완수(중방)

■ 12.10(월)

-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탄증산 추진(중방)

■ 12.12(수)

- 평양방직공장 염색공정 개진(중방)
-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경제림연구소, 새 호나무 등 품종 연구성과(평방)

■ 12.13(목)

- 평안남도, 올해 1만세대 이상의 현대적 살림집 완공(평방)

■ 12.14 (금)

- 강원도내 지방산업공장들, 인민소비품 생산 성과(중방)
- 개천탄광, 석탄생산 성과(중방)

■ 12.15(토)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현대화·정보화 주력(중방)

■ 12.16(일)

- 평양시 강동군 읍지구, 농촌문화주택 완공(평방)

■ 12.17(월)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연말 생산전투 주력(중방)

■ 12.18(화)

- 농업근로자 단체 등,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6돌 기념 경축모임 진행(중방)

■ 12.20(목)

- 함흥시 협동농장 경영위 기사장 등,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성과 보도(중방)

■ 12.21(금)

- 신계건재공장, 연말생산 투쟁 성과(중방)

■ 12.22(토)

- 채취공업성 국장 등,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6돌 관련 반향 보도(중방)

■ 12.23(일)

- 원산통신케이블공장, 인민경제 초과달성 보도(중방)

■ 12.24(월)

- 직총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성과 지적(중방)

■ 12.25(화)

- 석탄공업성 부상 등, 올해 석탄생산 성과 보도(중방)

■ 12.26(월)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평방)
- 자강도내 중소형발전소, 연말 전투 생산 주력(중방)
- 2007년 중요 건설대상 완공 성과 보도(중방)
- 금속공업성 국장 등, 올해 금속공업 성과 보도(중방)

< 부록 3 > (당보·군보·청년보의 신년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지금부터 새해 주체96(2007)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조국강산에 승리와 번영의 기상이 약동하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찬란히 빛날 새해의 보람찬 진군이 시작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에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일대 비약을 이룩한 자랑과 기쁨을 안고 새로운 창조와 전진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해 주체 95(2006)년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 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수놓아졌다.

장구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연대기에서 2006년처럼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강국의 높이에 오르고 민족의 존엄이 힘있게 떨쳐진 때는 없었다.

지난해의 특기할 사변들과 역사적 승리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 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조선혁명의 불패성과 빛나는 미래는 선군에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백전백승을 떨쳐 왔으며 나라의 최고 이익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다져왔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국력을 갈망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10여 년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린 긍지 높은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펼쳐준 승리의 여명에서 커다란 신심을 얻고 영웅적 투쟁을 벌여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경제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건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온 나라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지난해의 투쟁성과는 우리 인민에게 가까운 연간에 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을 떨치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재능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개척하고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역사에 빛날 공적을 쌓았다.

우리의 강한 체육선수들이 여자축구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들에서 특출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민족의 기상을 높이 떨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성과작들이 창작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우리의 고유한 민속전통과 풍습이 활짝 꽃피나게 되었다.

2006년이 우리 혁명과 민족사에 특기할 승리와 위훈의 해로 장식된 것은 우리 당의 영도의 현명성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확고히 고수했으며 전당 전국 전민을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진군으로 확신성 있게 이끌었다.

정확한 전략전술과 탁월한 영도예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성된 난국을 과감히 헤치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영도는 모든 승리와 기적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 위에서 우리의 전반적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왔다. 지난해 트드 결성 80돌을 성대히 기념한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선혁명의 계승성이 확고히 고수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온갖 난관과 고생을 꺾고 이겨낸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은 그 무엇으로서도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 나아갈 때 백전백승하며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념을 더욱 철석같이 간직하였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만난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고 2006년을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해로 되게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실록과 불멸의 역사적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새해 96(2007)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

다. 이 하늘 아래, 이 땅위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5돌을 일대 민족적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이시다.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와 우리에게 존엄 떨치는 선군조선의 오늘의 번영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돌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그 완성을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떨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우리는 경사스러운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역사는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오신 선군영도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운명개척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선군혁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시위하는 전 인민적인 경사로 빛내어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새로운 연대는 선군혁명의 민족사적인 승리와 성과에 기초하여 조국번영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연대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사상이 있고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도 다져진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된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더욱 과감히 벌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대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기 위한 보람찬 역사적 위업이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선군조선을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으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의 주되는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선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짓수와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품들여 마련하여 놓은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 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상품공급과 인민봉사업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소비품들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일꾼들은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근로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누리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선행부문이 앞서 나가고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야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성화 되게 된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긴장한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 개건을 적극 다그쳐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4대 선행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 힘을 돌리며 온 나라가 이 부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제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에네르기 및 자원개발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가며 나라의 자원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여야 한다.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모든 건설을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에 맞게 하며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들과 온 나라 농촌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잘 꾸리고 국토관리 사업을 잘하여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들은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지침이다.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우리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지지도 단위들은 우리 식의 경제건설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구현된 전형들이다. 현지지도 단위들의 귀중한 경험과 생동한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이 땅 위에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세운 원동력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이다. 강성번영의 새로운 영마루에로 치달아 올라야 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해놓은 튼튼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짧은 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기술개건도 생산과 경영활동도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강성대국 건설을 떠메고 나갈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며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창조와 건설에서 지식은 최대의 재부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 강화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은 조국과 인민의 생명이며 민족의 존엄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선군사상과 노선을 당과 혁명의

변함없는 지도적 지침으로 억세계 들어쥐고 나가야 한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 조선의 명맥을 지켜 나가던 시련의 나날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피로써 쟁취한 선군혁명 전취물들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해야 한다.

자주적 국방력에서 기본 역량을 이루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기둥이며 조국번영의 강력한 전위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건군 75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 장군님들의 슬하에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온 최정예 혁명장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

오중흡7연대 칭호 쟁취운동을 군사정치사업의 총적 과업으로 들어쥐고 군력강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불사신의 총폭탄 대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계 준비시켜야 한다.

최고사령관의 혁명사상으로 전군을 일색화하고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확고히 세우며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품모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전군을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원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서릿발

같이 솟구치게 하여야 한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드세게 벌이며 모든 훈련을 과학화, 정상화하여 우리 식의 전법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조국의 전초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자비하게 격파 분쇄하여야 한다. 부대지휘 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 강철같은 군사규율과 정규화적 면모를 갖춘 인민군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애국적 열정과 전투력 기상은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어야 한다. 인민군 장병들은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 다진 혁명적 군인정신의 위력을 폭발시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

세상에 없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대는 원민을 하여 군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사중시기풍을 계속 철저히 세워 모두가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정치사상 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사회주의는 단결의 힘에 의하여 건설되고 번영한다. 준엄한 반제투쟁에서나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일심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혁명의 수뇌부는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이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수뇌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오직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열혈투사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5.25교시 40돌이 되는 올해에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우리 당의 선군혁명역사를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인민답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원대한 포부와 내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신심 드높이 전진하는 불굴의 인간, 낙천적인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우리 사상이 제일이고 우리의 문화와 도덕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은 치열한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녹여내려는 원수들의 심리모략전과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려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 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 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과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선전 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사상사업과 문화정서 교양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여 온 나라에 낙천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전투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전당 전국 전민을 조국번영을 위한 총진격예로 불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다.

당을 강화하고 당 조직들의 전투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조선노동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당의 영도를 떠나서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은 전당에 영도자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만이 확고히 서 있는데 있다.

전당이 영도자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 규율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 당이다. 모든 당 조직들은 우리 당의 사명과 투쟁 목적에 맞게 경제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 사업이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장을 발동하는 산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와 성격, 사상 감정과 심리에 맞게 사업하는 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일꾼들이 있다. 당 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자기는 잠을 못자고 차례지는¹⁾ 것이 적어도 인민을 위하여 한 몸을 내대고 아글타글 애쓰는 일꾼이 혁명하는 시대 일꾼, 인민의 참된 총복이다.

올해의 총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자면 각급 당 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벌이며 근로단체 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하는 데서 내각을 비롯한 경제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

1) 차례지다: (일정한 차례나 기준에 따라) 뒤편으로 차지되다.

이 중요하다. 내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중대한 위치와 사명에 맞게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경제관리를 실리가 나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적 공간을 옹게 활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 나라의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누구나 다 맡은 초소에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뛰고 또 뛰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 일꾼들은 새로운 종자를 찾아 쥐고 초행길을 걷는 선구자, 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은 청년들을 전례없는 영웅적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고 있다. 청년들은 앞날의 강성대국의 주인공들이며 당의 위업을 실현하는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이다.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은 공청 창립 80돌을 맞으며 조선청년운동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청년운동의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빛내어야 한다.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모든 청년들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제일 결사대로 키워야 한다. 새 세대 청년들의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주어 그들이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사상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

명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 나가 청춘의 기개와 위훈을 떨쳐야 한다. 청년들은 당과 조국 앞에 큰 공을 세우고 인민의 찬양을 받는 청년 영웅, 애국청년이 되어야 한다.

직맹, 농근맹, 여맹 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며 그들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60여년의 분열역사가 흘러온 이 땅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지난해에 자주통일운동의 생활력과 6.15통일시대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구호를 들고 내외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반통일 전쟁책동을 짓부셔 버리며 조국통일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 우리 겨레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닌 존엄있는 민족이며 통일강성대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민족사적 흐름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지난해의 현실이 다시금 확증해 주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위업의 불변의 지침이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

일시대를 빚내어 나가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하여 분열과 전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입장이며 좌우명이다.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이념도 민족의 이익보다 앞설 수 없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 대²⁾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발전 공고화해 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우리 민족 내부분쟁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늘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어로 나아가는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을 차단하고 전 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반공화국 반통일 전쟁책동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평화수호 투쟁은 민족의 생존투쟁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민족적 자주권을 목숨 바쳐 고수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있다.

2) 대 :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신념대로 끝까지 일을 해 나감(*배짱).

전 민족이 반전평화옹호 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 보고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통일위업의 원동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매국반역적인 기도와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도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별어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 부셔 버려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 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온 겨레는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과시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선군정치를 견결히 옹호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 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세의 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과 강권은 실패를 면할 수 없으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 자주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강성대국의 여명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다져진 천만군민의 힘과 열정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은 위대한 사상으로 존엄 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강력한 군력으로 백승 떨치는 무적필승의 사회주의 강국이다.

그 어떤 힘도 사회주의 낙원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용기백배 기세 드높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총진군 하자. []